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가 21일부터 24일까지 갈보리채플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 LA통곡기도대회 10월 4일 오후 4시 주님의영광교회에서

그날까지선교연합이 오는 10월 4일 LA에서 통곡기도대회를 연다. 10년 전부터 북한의 구원을 위해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열린 통곡기도회는 국제사회에 북한 인권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미국 정치계에도 큰 영향력을 미쳐왔다.

올해는 5월 13일 달라스를 시작으로 디트로이트, 애틀랜타, 워싱턴DC, 덴버에서 기도회가 열렸으며 마침내 LA에서 집회가 열리는 것이다.

10월 4일 오후 4시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에서다.

이번 기도회에서는 6명의 탈북자들이 간증한다. 이 중에는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인물도 있어 참석자들에게 큰 도전이 될 전망이다.

이 기도회를 위해 22일 엘에이 한인타운 내 한 식당에서 관계자들이 마련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관련기사 4면에 계속]

## “시대를 살리는 건강한 목회자”

21-24일까지 예정 국제총회 개최...신임 총회장에 이서 목사 선출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가 '시대를 살리는 건강한 목회자'란 주제로 120여 총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1일부터 24일까지 남가주 무리에타에 있는 갈보리채플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21일 개회예배에서는 김광신 목사(GMI 총재)가 말씀을 전하고 안

동주 목사(총회장)의 인도로 성찬식이 거행됐다.

22일부터는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가 열려 김광신 목사가 "건강한 목회자",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건강한 교회", 안동주 목사가 "건강한 설교"란 주제로 각각 메시지를 전했고 저녁에는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와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가 각각 집회를 인도했다.

마지막 날인 24일에는 부총회장 이서 목사(미주비전교회)가 총회장에 추대됐다.

이 교단은 1989년 한국 예장 보수합동총회의 미주연합노회로 시

작됐다. 현재는 미주 지역과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지역, 구 소련을 포함한 유럽 지역, 중앙아시아 지역, 중남미 지역에 노회를 두고 있으며 GMI(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란 명칭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다.

문소현 기자

### || 지령 500호 축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선도하며 교계의 아름다운 소식을 이민 1세대는 물론 2세대, 3세대뿐 아니라 타 민족에게까지 영역을 넓혀 영자신문까지 발행하는 기독일보가 이제 창간 500호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독일보는 그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신앙심을 가진 기독교 정론지로서 복음 전파는 물론 수많은 교계의 소식을 가감없이 정확하고 신속히 전해 왔으며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교계 신문이 목회자와 성도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언론은 더 많은 독자의 시선을 끌기 위해 확인도

### “세계복음화에 기여하는 기독신문되길”



최혁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되지 않은 내용을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여과없이 기사화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일보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며 건전하고 검증된 내용을 정확하고 선하게 전달하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기독교 신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신문 지면이나 인터넷을 통

하여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날마다의 삶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기독일보가 교계에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도 역량을 발휘하여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신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크리스천 공동체의 통로로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간증을 통해 은혜와 감동을 주기도 하지만 교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산발적 진단과 비판이 아니라 아픔도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기독교 언론이 되어 미주뿐 아니라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기독신문사로서 발전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창간 500호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성령에 이끌려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신문”



김기동 목사  
 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기독일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령 500호를 발행하게 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첫 번째로 축하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일보의 기사들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성을 다하여 만든 신문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글이 아닌 독자들의 마음에 와 닿게 하는 신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신문인 기독일보가 지령 500호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었을가를 생각하며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축하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일보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이라는 것입니다. 흔탁하고 광박한 이 시대에 성령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원하시는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독일보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이끄는 화해의 신문으로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것임을 믿고 축하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축하를 드리는 것은 기독일보는 차세대를 생각하며 앞서 나가는 신문임을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세대 위한 영문판 발행은 귀한 일입니다. 아무쪼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기독일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정비 타이어 데리점  
**GOOD YEAR**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관과 12가

**IVY DREAM** Shelby Kwon Director  
 이정석 박사님 (College Applications)  
 3-7-21 재능캠프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개발: 토랜스, 얼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USA Tel: (949) 329-8222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Email: shelby.moon65@gmail.com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www.MyIvydream.com

기독일보 창간 500호를 축하합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981 S. Western Ave. Suite 401,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5-3000 Fax: 323-735-3111 Website: scalcck.org



### 오픈청지기재단 주최 “비영리단체 박람회” 성황리에 열려

‘나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한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9일 오픈뱅크 산하 오픈청지기재단이 개최한 비영리단체 박람회 “Love of Sharing”에는 첫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45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20여 비영리단체들의 사역을 소개받았다. 이 단체들은 저소득층, 장애인, 이민자, 가족과 어린

이, 해외 빈곤층을 돕는 여러 단체들로 남가주밀알선교단, 한인가정상담소, 굿네이버스, 컴패션, 소망소사이터티 등이었다.

행사에서는 특별히 영 김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과 에브리데이교회 최홍주 목사가 참석해 특강을 전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나의 봉사를 통해 누군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에 주목하

라”고 강력히 도전했다. 그는 “당신이 섬기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누군가 알아주거나 칭찬해 주길 바라지 말고 당신의 그 가치 있는 일로 만족하라”고도 했다. 최 목사는 “크리스천으로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웠다”고 설명했다.

오픈청지기재단은 비영리단체들 간의 네트워크와 정보 교환을 통해 커뮤니티 봉사에 활력을 더하고 상호 협력을 증진하며 한인들의 참여



오픈청지기재단 주최 제1회비영리단체 박람회에 참가한 비영리단체들이 각자의 부스에서 그들의 활동분야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다.

를 독려하고자 이 행사를 올해 처음 마련했다. 이윤형 기자

### “역사보다 기쁨으로 하나님 섬겨야”

나성언약교회 창립 50주년 감사예배 성료



LA 한인 이민역사 초창기 교회 중 하나인 나성언약교회가 20일 창립 5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나성언약교회가 9월 20일 창립 5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는 1965년 9월 19일 고 김학철 목사에 의해 ‘베다니교회’란 이름으로 LA 남부 412 W. Slauson Ave.에서 창립된 이후, 한 차례 예배 장소를 이전하고 교회 이름도 ‘나성성약

교회’로 변경한 바 있다. 1988년부터 ‘나성언약교회’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1999년 LA 북부인 5260 Lincoln Ave.로 예배당을 구매해 이전했다. 현 담임은 2009년 부임한 이순환 목사다.

이날 설교에서 이순환 목사는 “울

지 않은 청지기(눅16: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50주년에 뜬금 없어 보이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걱정스레 물으신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준 재물을 사랑하느냐. 구원이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빛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어 “50주년을 맞이해 참 감사드리고 기쁘지만 계 2:5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아니하면 쫓대, 즉 교회를 옮기신다고 한다. 역사가 소중하지만 그것만 보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자”고 강조했다.

주일에배를 겸한 감사예배 후에는 모든 성도들이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교회의 비전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11:40)”를 되새겼다.

김준형 기자

### “찬양 통한 한마음”

제34회 남가주 찬양 합창제 열려



제34회 남가주 찬양 합창제가 20일 성대히 열렸다. 사진은 이번 행사에 참여한 생수의강선교교회의 성가대.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서병호 장로) 주최, 제34회 남가주 찬양 합창제에 총 9개의 성가대가 참여해 찬양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누렸다. 20일 오후 7시 남가주주님의교회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약 600여 명이 참석하면서 남가주 지역 최대의 교회음악 행사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감사한인교회, 글로벌선교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남가주살롬교회, 남가주주님의교회, 생수의강선교교회, 선한목자교회, 주님세운교회 등 주로 LA 동부와 중부 지역의 중대형 교회 성가대들과 랜디 김이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컨템포러리 워십콰이어가 참여했다.

행사에서는 먼저 남가주살롬교회가 “기드온의 300 용사”를, 생수의강선교교회가 “전능의 신실하신 하나님”과 “만왕의 왕 여호와”를 불렀다.

이어 남가주주님의교회가 “주 안에서 기뻐하여라”와 “Gloria”를 부르고 감사한인교회가 “이제야 돌아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를,

남가주사랑의교회가 “거기 너 있었는가,” “제자의 길”을 불렀다.

로스앤젤레스 컨템포러리 워십콰이어가 “축복송”과 “Joyful Joyful”을, 선한목자교회가 “깃세마네의 기도”와 “일어나라”를, 글로벌선교교회가 “영원한 생명”과 “주님만 아시네”를, 주님세운교회가 “영광”과 “예수”를 불렀다. 마지막은 모든 성가대와 청중이 함께 일어나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서병호 회장의 지휘로 “이 믿음 더욱 굳세라”를 합창했다.

교회들의 공연 중 남가주 교회음악 발전을 위한 특별 기도와 헌금의 시간이 있었으며 남가주 어린이 찬양대회 초등부 1등 수상자인 조슈아 우 군과 소프라노 최정원이 “Open the Eyes of My Heart”와 “Amore Dei”를 각각 불렀다.

서 회장은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하여 모인 각 교회 찬양대원과 지휘자, 각 교회 사역자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축복이 넘치길 기원한다”고 했다.

김준형 기자

#### 구세군 나성교회 김진국 목사 초청 찬양집회

집회는 10월 9일(금) 오후 7시 30분, 10일(토) 오후 5시 30분 두 번 열린다. 문의: 213-480-0714

### “햄버거 구우며 이웃에게 복음과 사랑전해”

산타모니카찬송교회

지역주민과 학생들 위해 150개 햄버거 구워

산타모니카찬송교회(담임 김경렬 목사)가 15일 지역 주민과 대학생들을 위해 150개의 햄버거를 구웠다. 이 교회는 “주여 나를 사용소서(Make Me a Servant)”라는 섬김 행사를 열고 이 자리를 방문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었다. 이 교회는 산타모니카 칼리지 바로 앞에 자리잡고 있다.

김 목사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전했다. 또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예배를 통한 회복을 강조하며 사랑을 나누었

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이 행사에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은 전화 310-502-9999로 연락하면 된다.

이 교회는 주일 1부 예배를 오전 8시, 청년 예배를 오후 1시 30분, 영어예배를 오전 11시 15분에 드리며 웨스트LA 주민을 위한 새벽기도회를 월-금 오전 5시 30분에 드린다.

주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90405, 문의: 213-383-2345/웹사이트: www.smkc.us



산타모니카찬송교회가 햄버거 150개를 구워 주민과 대학생들과 나누었다.

## 나성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 창립30주년 및 부원장 이취임 감사예배

- 일시: 2015년 10월 4일(주일) 15:30
- 장소: 나성순복음 국제금식기도원  
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
- 문의: Tel. 951-928-4415(기도원)  
323-913-4499(나성순복음교회)

강사



진유철 담임목사

이임



고헬렌 목사

취임



이태준 목사

기도원 오시는 길

101 South 또는 I-5 South - 60 East - I-215 South Exit Nuevo Rd. - Manifee RT - Mountain LT - Gunther Rd로 진입



영성 순례

LA 십자가 영성원

이민 목회는 결코 쉽지 않다. 하나님 은혜없이 단 하루도 견디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 '십자가의 길'은 그런 그들이 몸소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오르는 체험을 통해 치유와 위로, 그리고 사명을 회복시킬 기회를 갖게 한다. 목회자 자신이 변화를 먼저 체험한 후,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지난 5월 4일부터 6일까지 열렸던 제1회 십자가의 길 체험 영성 훈련을 마친 참가 목회자들이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누며 활짝 웃고 있다.

십자가 지고 '비아 돌로로사의 길' 체험 은혜 속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장 28절)

"비아 돌로로사(Via Dolorosa)는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판결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진 채 골고다의 언덕까지 간 고난의 길 이름입니다. 이제 그 비아 돌로로사를 재현한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끝없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약할 때 강함을 체험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길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착박한 이민목회는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순간을 극복하게 해 주실 생수와도 같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너도 지고, 우리 함께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갔으며 합니다." LA영성사역원(공동대표: 이명수 목사, 김재홍 목사)에서는 이 지역 목회자들의 영성 및 사명 회복을 위해 연 1-2회 기준으로 십자가 지는 체험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그 일

환으로 지난 5월 4일부터 6일까지 제1회 '십자가의 길' 시간을 마련하고 목회자 15여 명을 초청했다. 이 '십자가의 길'은 한국 새창원은 해교회(담임 피은혜 목사)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곳 청운교회(담임 이명수 목사)의 헌신으로 청운교회 비전하우스에서 열렸다. 청운교회는 교회의 비전하우스를 무료로 개방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식사 등의 모든 지원으로 아낌없는 헌신을 보여줬다. 새창원은해교회는 사역팀 10여 명이 직접 이곳을 방문하여 처음 열렸던 '십자가의 길'의 모든 준비 및 과정을 섬겨줬다. 이 '십자가의 길'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한 곳이 바로 새창원교회이기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마태복음 11장 29절)

때문이다. 이 사역을 진행하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사명을 회복해가는 목회자들의 감동을 곁에서 직접 경험하고 있기에 미주지역 이민 목회자들의 사명회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참가자들은 실제로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는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걸어 가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의 길'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며 주님의 고통에 비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민 목회의 고난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새로운 힘을 얻고 사명을 회복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됐다. 실제로 그 순간에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는가 하면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은혜를 체험하였음을 간증하기도 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왜냐하면 첫 '십자가의 길'에 참여했던 목회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두 번째로 열리는 이 '십자가의 길'의 주 강사나 기타 자원 봉사자로 섬기길 자청하고 나섰다. 자신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그 은혜의 감격이 수개월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하기에, 그 감격을 또 누군가에게 꼭 나눠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었다. 자기 부인없이 십자가의 은혜

를 결코 알 수 없다. 그러나 자기부인은 십자가 은혜가 임할 때만 가능하다. 열실적이겠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믿음의 길일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영성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어 지역 복음화에 활력이 넘치길 기대해 본다. '십자가의 길' 체험은 예수님께서 지셨던 대형 십자가 (가로180cm x 세로 260cm 두께 7cm 폭 12cm)를 지고 정해진 코스를 가게 된다. 예수님께서 쓰러지고 넘어지셨던 14개의 지점을 통과하면서 '자기부인'을 통한 '십자가 은혜'의 샘물을 마시고 사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을 체험케 될 것이다.

-일시: 10월 8일(목)-10일(토)  
-장소: 비전하우스(32949 Oracle Hill Rd, Palmdale, CA 93550-9782)  
-출발장소: 청운교회  
-주요 특강으로는 '기질과 십자가(강사 김진년 목사, 목성연 치유사역 리더)와 '역사적 십자가'(이종곤 목사, 한미복음교회)가 있으며, 그 이외에도 가상철원 기도회, 피은혜 목사 특강, 이석춘 목사 특강 등이 있다.  
문의는 이명수 목사(213-675-8291)에게 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거친 사막위에 정성껏 다듬어 조심스럽게 세워놓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은혜를 되새겨보고 있는 목회자들.

Advertisement for Hyundai car sales. Text: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Includes Hyundai logo and contact info: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Advertisement for Saevit Acupuncture Clinic. Text: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Services listed: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Includes a photo of a practitioner and contact info: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Advertisement for Laort College. Text: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Lists programs: Accounting, Business Management, Administrative Assistant, Phlebotomy, Medical & Clinical Assistant, Medical Office Management,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Digital Media,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D),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Contact: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 통: T(213)703-6863 Office: T(323)966-5444. Website: LAORT.EDU 1.800.998.2678. Locations: MID-WILSHIRE CAMPUS, SAN FERNANDO VALLEY CAMPUS.





LA한인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무료 영어 클래스에서 영어를 배운 어른들이 영어 노래를 합창하고 있다.



뉴저지교협 제29회 정기총회가 21일 개최됐다.

### “추석맞이 큰 잔치”로 어른들 위로해

LA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박형만 장로) 주최, ‘추석맞이 큰 잔치’가 21일 이 센터 강당에서 열려 고향을 그리워하는 한인 어른들을 위로했다.

이날 행사에는 400여 명 이상의 한인 어른들이 참석하여 흥겨운 한 마당을 즐기고 센터 측에서 준비한 경품과 푸짐한 음식으로 조국에 대한 향수를 달랬다.

이 센터 이장엽 이사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잔치는 우리 고유의 민속 춤과 합창 등으로 꾸며졌다. 최창수 교수, 양타아, 최기열, 김철수 등에게는 봉사상을 수여했다.

또한, 올림픽경찰서장과 이사장 박형만 장로, 이장엽 이사는 함께 큰 절로 이만 1세대의 헌신과 노고를 위로하여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행사 순서는 이 노인 센터 무료 제공 프로그램 수강자들이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장이었다. 그 속에서 비록 나이는 들어도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줬다.

특히, 음정도 박자도 모두 제각각이었지만, 그동안 배운 ABCD 영어실력을 뽐내며 영어로 합창할 때는 참석한 어른들에게 “나도 할 수 있겠다”는 도전을 주기에 충분했다.

박 이사장은 조출하지만 이러한 행사를 통해 어른들을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한편, 이튿날인 22일에는 서독동우회와 파독 간호사들에게 수여



(오른쪽으로부터)박숙희 권사, 박형만 이사장, 김현명 LA총영사, 김창수 서독동우회 회장

는 박근혜 대통령 감사장 수여식이 있었다. 수상자는 김창수 서독동우회 회장과 박형만 이사장, 그리고 파독 간호사였던 박숙희 권사 등이다.

이영인 기자

### ‘할 수 있다’ 희망 속 출범한 뉴저지교협 29회기

#### 신임 회장 이의철 목사 신임부회장 안명훈 목사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가 21일 오후 7시 임마누엘성결교회(담임 박찬순 목사)에서 제29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직전 부회장인 이의철 목사(뉴저지은혜제일교회)를 추대했으며, 부회장에 안명훈 목사(아콜라연합감리교회)를 선출했다. 평신도 부회장은 회계를 맡았던 윤석래 장로가 선출됐다.

뉴저지교협의 29회기를 이끌어갈 신임회장 이의철 목사는 “그 전까지는 안 된다는 의식이 있었지만 뉴저지 교회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게 됐다”면서 “연합하고 소통하며 교협의 위상을 발전시키고 회원 교회들이 다 함께 하는 29

회기가 되도록 하자”고 밝혔다.

뉴저지교협 신임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 동안 다소 침체돼 있었던 뉴저지 교회들의 연합 활동이 28회기를 기점으로 저력을 보여주면서 뉴저지교협의 향후 발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뉴저지교협은 연합 집회의 규모와 재정 운영 측면에서 그동안 뉴욕교협에 많은 비교를 받았다. 그러나 28회기에 신년하례회 및 부활절연합예배, 호산나복음화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데다 운영비를 제외한 모든 수입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는 등 뉴저지 교회들의 연합 가능성과 힘을 보여주면서 뜻 깊은 한 회기를 보냈다.

이날 회무에 앞서 열린 예배는 이춘기 목사의 사회로 이의철 목사가 설교했다.

### 장학금 모금위한 밀알의 밤 “하나님의 선물”



인기 가수 바다가 남가주 밀알선교단 주최, 장학금 모금을 위한 밀알의 밤에서 공연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가 있다길래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달려 왔습니다.”

한국의 1세대 걸그룹 SES의 보컬 출신으로 현재는 뮤지컬 배우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바다’가 2015

#### 바다 “밀알 장애인 섬기는 일에 망설임없이 달려와” 밀알 장학생 클라리넷 연주자 장성규씨도 함께 해

밀알의 밤 (하나님의 선물(엡2:8-10))에 나타났다.

조명이 켜지자 자신의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Dreams Come True’를 부르며 무대로 올라온 바다는 대중가요, CCM, 뮤지컬 등 장르를 넘나들며 아름다운 노래로 청중들을 매료시켰다.

가톨릭 신자인 그는 어린 시절 경제 어려움으로 인해 7년간 성당에서 살며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전했고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주님의 사랑으로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다.

바다는 최근 KBS 불후의 명곡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밀알로부터 초청을 받았을 때 전혀 망설임이 없었다고 했다.

바다가 “약간 불편함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섬기는 일에 함께 하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말하자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고 그는 “이 박수는 여러분이 받으셔야 한다”고 했다.

이 콘서트에는 클라리넷 연주자 장성규씨도 참여해 큰 감동을 주었다. 그는 연주 후 “저 역시 밀알 장학생”이라면서 “여러분의 사랑이 수많은 장애인들을 돕고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시각장애인인 장씨는 장애를 뛰어넘어 독학으로 클라리넷을 익혀 광주대학교 음대, 독일 카셀음악대학, 텍사스주립대를 거쳐 현재 존스홉킨스대 피바디음대에서 공부 중이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포기할 수 없는 나의 클라리넷”이란 책도 펴낸 바 있다.

이번 밀알의 밤은 남가주 지역에서 3차례, 18일 ANC은누리교회, 19일 주님의영광교회, 20일 베델한인교회에서 열렸다. 공연 수익금은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으로 적립돼 장학생들에게 전달된다. 남가주밀알선교단은 2001년부터 밀알의 밤 행사로 장학금을 모금해 현재까지 14차례, 총 181만 달러를 897명의 학생에게 전달했다.

김준형 기자

### 북한 구원위한 LA통곡기도대회



(왼쪽으로부터)공동대표 손인식 목사, 김인식 목사, 박희민 목사, 송정명 목사

[1면으로부터 계속] 기자회견에는 KCC-UTD의 손인식 목사를 비롯해 박희민 목사, 김인식 목사, 송정명 목사 등이 참석해 북한 인권과 구원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10월 9일 오후 8시에는 북한 인권 운동의 대명사인 수잔 솔터 여사를 초청해 통일 세대 기독교인재 양성 세미나가 웨스트힐장로교회에서 열린다.

이윤형 기자

### 기독교일보

편집교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sarang.com

# 기독교일보 창간 500호를 축하드립니다

**2015년 표어:**  
“하나님을 섬기고  
다음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시 22:30)

**주일예배 (본당)**  
■ 1부 오전 7시 20분      ■ 2부 오전 9시 20분  
■ 3부 오전 11시 20분    ■ 4부 (젊은이예배 Passion5) 오후 1시 20분

**HolyWave English Worship [킹덤드림센터(KDC)]**  
■ 1부 오전 9시 20분      ■ 2부 오전 11시 20분  
2부, 3부 시간에 드려지는 HolyWave English Worship은 믿음의 차세대들이 이민교회를 섬기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일꾼이 되도록 만드는 예배입니다  
www.holywave.sarang.com

**청년·대학부**  
■ 청년부/한어대학부 : Passion5    ■ 영어청년부(NEXT) : 금요일 오후 7시 (KDC Hyssop Hall) 오후 1시 20분(본당)    ■ 영어대학부 : 오전 11시 20분 (은혜채플)

**교회학교** 주일 2, 3부 예배시간에 함께 진행됩니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시 20분 / 토 오전 6시 20분  
매달 첫 토요일예배 : 오전 6시 20분 (이중 언어로 진행)  
**AWANA**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체육관)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KDC)  
**사랑부** 발달장애우주일학교 : 주일 오전 9시 20분, 오전 11시 20분 (112호)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Sa-Rang Community Church Rev. Chang Soo Ro, Sr. Pastor**

■ 본당 :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 킹덤드림센터(KDC) : 1990 W. Crescent Ave., Anaheim, CA 92801  
■ Tel. 714-772-7777 / Fax. 714-772-0777 / e-mail: church@sarang.com



# 학개 선지를 통한 말씀과 성령운동

학개 1:1-15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 1.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는 이유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보다 더 달게 받아 믿음으로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태평성대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도 많았습니다. 그 때에 그들은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것을 더 기대하고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께 배은망덕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고 주변 국가들을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삼으셔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정없이 두들겨 맞고 죽임 당하고 포로로 잡혀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비극도 여러 차례 되풀이 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B.C 605년에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70년간 붙여서 매를 맞고 멸시전대와 온갖 구박과 행패를 당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때에 느부갓네살은 성전에 세워진 두 기둥인 야긴과 보아스의 순금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사와 하나님 섬기는 일에 사용되는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등 6,000여 개를 모두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가 70년 동안 종노릇하게 하십니다. 당시의 왕인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두 눈이 뿔뿔히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하도 배은망덕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쳐도 이성을 잃고 악령에게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그들이 섬기는 미신우상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런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히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매를 때리시면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용서를 빌며 매를 맞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자신은 매를 맞지 않겠

다고 도망을 가거나, 변명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강박한 마음은 도리어 더 참혹한 형벌을 재촉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 2. 성전 건축의 지연으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

이제 70년 세월을 비참하게 지내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방되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포로를 귀환시키는 바사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금, 은, 보석 등을 함께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성전 지을 돈을 미리 챙겨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돈으로 자기 집 짓기에 바빴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으로 경쟁하듯이 허욕을 채웠습니다. 그 때 제사장이나 스룹바벨 총독이 우리가 다시 성전 재건하자고 하면 그들은 여호와와의 성전을 재건할 시기가 지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욕심을 아직 덜 채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고레스왕을 통하여 거둬 모아서 챙겨가게 하신 돈을 가로채서 성전 짓는 일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네 집 짓는 일에 바빴던 것입니다.

본문 4절에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라고 책망하십니다. 판벽한 집이란 것은, 집을 아주 거창하게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찌니라"

소위를 살펴보라는 것은, 자기가 행한 일을 점검해 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촉구입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씨를 많이 뿌려도 수입이 적었고, 많이 먹고 마셔도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른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전대에 구멍을 뚫어놓아 샴을 받아 넣어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물질을 많이 모아 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전대의 구멍을 막아 주시지 않으면 더 많은 재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수입보다 나가는 지출이 더 많기에 항상 그의 삶이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대의 구멍을 막아 주시면 수입이 적을지라도 빠져 나가는 지출이 없기에 그는 점점 부유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유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 3. 성전 건축을 명하신 하나님

성전 건축을 지연하는 여러 핑계 중 하나는 약 60여 년 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처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00살쯤 되는 늙은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웅장하고 화려했던 것을 재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솔로몬 성전의 모습을 본 적 없던 자손들은 성전을 재건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이 만나는 장소이니 금, 은으로 화려하게 꾸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목조건물로 짓더라도 상관없으니 우선 성전재건을 시작하라는 명령입니다. 성전재건을 위하여 나무를 베기 시작하는 그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자신의 관심과 기대와 믿음과 정성을 오직 하나님

께만 기울이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금으로 멋있게 짓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비록 초라하게 나무를 베어다가 목조건물로 성전을 건축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성전건축을 시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성은교회로 불러주셔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해 보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는지,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계십니다. 만일 후자에 해당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니 실패는 불을 보듯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실패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서둘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사랑의 채찍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 목적에 어긋나게 쓰는 것은 안 됩니다. 건강회복, 물질회복, 명예회복, 인간관계회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면 내 건강도 물질도 인간관계도 다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더 크게 도우셔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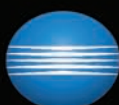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Welcome to a better world

## 모든 사용자를 만족시키는 업무 효율의 혁신



### KONICA MINOLTA bizhub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크  
 최고의 인쇄 품질과 획기적인 비용절감



###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 bizhub C554e / C454e / C364e / C284e / 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 ppm Duplex	Dual Scan ADF 80 ppm Simplex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	-------------------------------------	-------------------------------------	-------------------------------------	-------------------------------------	------------------------------------	------------------------------------	-----------	---------------------	----------------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FTB,SBOE,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소셜연금,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 "21세기 목회는 선교의 현장입니다"

청지기목회자학교에서는 PCA, CRC, PCUSA, RCA, ECA, SBC 등 미국내 교단 안수 신청과 편목 서류를 도와 드리고 아울러 영어 인터뷰 때 실수하지 않도록 정확한 영어구사 표현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1. 미국교단 안수 및 편목 지원방법과 관련서류 작성법 강의
2. 미군군목(육군, 해군, 공군, 해병 등) 지원서류 접수대행 및 인터뷰 과정 강의
3. 병원 원목(CPE) 프로그램 강의
4. 교회설립과 주 정부 등록 그리고 비영리 등록 강의
5. 교회 개척에 필요한 "On Stop Planting" 강의
6. 선교 가시는 분들을 위한 비즈니스 선교 강의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생 그리고 목회에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분들은 전화 상담이나 예약방문을 권합니다

**USCRC Pastoral Education (청지기목회자학교)**  
Tel(310)502-9999  
3055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제이슨 송의 교육칼럼

## 불편한 예수 (XI)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이 시대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기에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한 세대를 잃어버릴 수 있다 생각한다.

십대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또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리고 여러 기독교 학교의 설문 조사 자료를 근거로, 왜 청소년들이 예수를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 자체를) 불편하게 인식하는지 시리즈로 살펴 보고자 한다. 첫 호에서 제기한 바, 청소년들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각각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10. 옴로 (YOLO: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살다가는 인생, 내 맘대로 살아보자) 성경의 하나님, 선과 악, 천국과 지옥을 거부하는 무신론자들의 철학은 바로 허무주의 (nihilism)이다.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의 "인빅터스"란 시를 들어보았는가?

나를 감싸고 있는 밤은/온통 칙칙 같은 암흑/나는 그 어떤 신이든, 신께 감사하노라/내게 정복 당하지 않는 영혼을 주셨음을

잔인한 환경의 마수에서/난 움츠러거나 소리내어 울지 않았다/운명의 몽둥이에 두들겨 맞아/내 머리는 피 흘리지만 굴하지 않노라

분노의 눈물이 이 땅을 너머/어둠의 공포만이 어둡듯하다/그리고 오랜 재앙의 세월이 흘러도/나는 두려움에 떨지 않을 것이다

비록 문이 좁을지라도/아무리 많은 형벌이 날 기다릴지라도 중요치 않다/나는 내 운명의 주인/나는 내 영혼의 선장

첫 부분은 마치 어려운 상황속에서 견고한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모습을 묘사하는 듯 하다. 그러나, 끝 부분엔 헨리의 생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비록 문이 좁을지라도"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 말씀한 "좁은 문"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천국길을 말하고, 또 "아무리 많은 형벌이 날 기다릴지라도"는 그 좁은 길을 택하지 않았을 때 도착할 지옥을 말하는데, 헨리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상관없이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겠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자 내 영혼의 선장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그 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YOLO 철학과 정반대되는 가르침이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청소년의 중심에 YOLO 사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겐 정도와 정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런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회가 불편한 곳일 수밖에 없다. 이런 청소년의 마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이다. 이 세대 교회와 목회자,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기독교 학교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돌리게 하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고후 10:4, 5)

이것은 영적전쟁이요 전신갑주를 필요로 함을 잊지말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엡 6장 12)

세상을 본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고 깨끗한 마음을 청소년이 소유하도록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깨닫도록 가르쳐야 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장)

이런 거룩한 목적을 이루려는 좋은 교회학교 교사와 기독교 학교 교사, 그리고 청소년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하다. 자신의 이익과 쾌락보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삶을 바치는 그런 차세대 리더를 키워야겠다. <끝>

말씀 묵상과 연단을 통해 신앙의 성숙함을 이뤄가며 배우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란 것이다. "목적적이 이끄는 삶(The Purpose Driven Life)"를 읽어보고 또 그 책의 내용대로 40일 새벽기도나 강해설교를 들어 본 사람은 릭 워렌 목사가 한 말을 기억할 것이다. 그것은, 인생의 목적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이다.

이것을 웨스트 민스터 신앙고백대로 표현한다면, Man's primary purpose is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즉, 인생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분을 즐기는 것이란 말이다. 잠언 3장 5-8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뜻은 인간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100%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 자기애성 영적 장애



정우영 교수  
미드웨스턴침례신학교

하지 않는다. 절대적 자존감에 대한 확신 덕분에 심지어 타인의 상승까지 즐겁게 응원할 수 있다.

상대적 자존감을 추구하는 '나만 주인공'은 타인을 조작하기 쉽다. 오래전 유대 사회의 주류였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만 주인공이라 생각했다. 어느날 그들 마음에 이방인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두려움을 느끼게 한 예수님을 끝내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했다. '나만 주인공'은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사회적 상승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반면 '나도 주인공'은 타인과 하모니를 이룬다. 내가 중요한 만큼 주위 사람들도 모두 VIP다. 자존감의 기준을 신에 두었기 때문이다. 자기와 타인들 모두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등장인물 모두가 주인공인 연극 무대가 있다면 어떻게? 신비로운 일이다. 이런 사건이 우리 삶의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야 한다. 너와 나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신비로운 만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한다. 우리 모두가 가진 자기애적 장애는 하나님의 이 완전한 처방으로만 치료될 수 있다. 역시 예수님 안에 치료 약이 있었다.

바보! 멍청이! 편집장이 매일 부하 직원들에게 하는 말이다. 경멸하듯 사람의 위아래를 훑어 보며 눈빛은 누가 봐도 '형편없군!'이라 말한다. 폭풍우 때문에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비서는 보스의 교통편을 반드시 찾아야 내야 한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나오는 편집장 프리슬리의 모습이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대표적 사례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소위 '나르시시스트'는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탁월하다고 믿는 사람이다. 자신의 거대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주위 사람들을 통제한다. 특별대우를 원하며 무대 중심에서 조명을 받으며 찬사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자기의 '완벽함'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되면 누구도 가차 없이 적어된다. 나르시시스트가 타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공감한다는 것은 어렵 없는 일이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말 그대로 장애다. 주변 사람들을 끔찍하게 괴롭히는 괴물이다. 이런 비정상적인 괴상한 성격 장애인으로 불리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흥미롭게도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나르시시즘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다. 사람은 신처럼 다스리고 싶어한다. 섬김받는 것을 섬기는 것보다 선호하며 꼬리보다는 머리가 되길 원하고 주변인보다는 중심

인물이 되길 원한다. 조연보다는 주연을 원하고 2위보다는 1위다. 지난 월드컵 결승전에서 패한 메시의 표정이 시상식 내내 어두웠다. 월드컵 대회에서 2위도 1위 못지 않게 대단히 훌륭하지만, 챔피언이 되지 못한 그에게 2위도 매우 훌륭하다는 말이 그다지 설득력이 없었을 것이다.

상담학자 로버트 맥기는 그의 책 '내 안의 위대한 나'에서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내 존재 가치가 타인의 평가에 달려있다고 믿는 것이다. 한편,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무조건 사랑받을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절대적 자존감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는 자존감의 기준을 타인의 평가에 두는 대신 신에게 둔다. 신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의 자존감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오르락내리락



www.sellacare.com SEARCH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영양제**  
**SELLA CARE®**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혈액 해독 / 기력 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면역력 강화

심장, 뇌 혈전 용해

뼈, 골수 영양 공급

#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신비한 영양제 M3® 세트

유태인 코서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CGMP생산물

면역력이 곧 기적!  
어떠한 병이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양제

## M3® 세트

- ✓ 100% Organic (유기농)
- ✓ Non-GMO (유전자조작 無)
- ✓ All Natural (순수천연)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1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2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던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3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4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 제품소개



#### M3

이 영양 보충제는 다양한 아미노산 결합 복합체입니다. 선진기술로 만들어진 이 제품 속에 포함된 무기질은 콩, 효모균, 보통 무기질 결합 복합체에 쓰이는 우유 단백질보다는 통쌀 농축물에 반응합니다. 셀라케어에 의해 사용된 특별한 쌀 농축물은 일반 쌀보다 아미노산 함량이 무려 7배가 높으며, 상당한 양의 공에서만 볼 수 있는 아미노산의 배열 단면을 가집니다.



#### VC 2000

이 제품의 특징은 캡슐로 되어 있으며 질 좋은 천연재료에서만 추출되는 바이오프라노노이드가 들어 있어 감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가장 질 좋은 Rosehips와 Acerola에서 추출된 최상의 비타민 C입니다.



#### ME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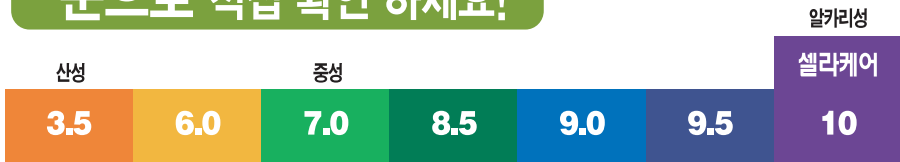
우리 몸의 가장 풍부한 무기물, 칼슘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체의 99% 이상의 칼슘이 우리 몸의 구조를 지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남은 1%는 체내 혈액, 근육, 세포 내 체액 속에 있습니다. 칼슘은 근육의 수축, 혈관 수축과 팽창, 호르몬과 효소의 분비, 신경계의 전달기능에 필요합니다. 칼슘의 생리학적 기능은 칼슘 섭취량이 불충분할 때 정상적인 혈액 내 칼슘 함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뼈의 염분을 제거하는 등 우리 인체의 생존에 매우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식이요법을 통한 칼슘의 섭취는 건강한 골격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 GOLDEN WATER

이 제품에 함유된 비타민 E는 베타d, 감마 d와 같은 면역관련 물질들이 혼합된 토코페롤과 100% 천연의 에스테르화되지 않은 알파토코페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 SELLA CARE®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제품상담문의 213.435.9600

본사(LA)	213.435.9600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러튼 홈쇼핑	714.496.7887	토렌스	213.268.0844
시온약국	213.344.9730	LA별몬 마틴약국	213.382.9718	에나하임	714.469.5809	뉴욕,뉴저지	201.983.8333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별몬 캘러리마켓약국	213.388.4100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씨애틀(건강마을)	206.229.5466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얼바인	949.330.9009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LA 5가버질 그랜드약국	213.380.5103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시카고 알바니아약국	847.699.1511
우리약국 (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글렌데일 한국마켓약국	818.637.7708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시카고 서울마켓 (헬렌)	224.406.0337
에스약국	323.733.7788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H 마트 내 H 헬스 (얼바인)	949.251.0193	조지아 (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올림픽캘러리마켓약국	323.733.7200	오렌지카운티	213.247.2244	놀워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LA 다운타운	213.798.3333	부에나팍 지구촌약국 (H마트 내)	714.228.9212	파이오니아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플로리다/NC/SC	770.457.1717
LA시온마켓엄마손약국	213.739.3030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캐나다	604.872.1669
LA 6가 버질약국	213.384.1200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로렌하이츠	626.912.5727		
다운타운 산페드로	213.765.9677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토렌스 한남체인(건강마을)	310.619.7758		



●달라이라마와 라마교(4)〈끝〉

# 달라이라마, 무당 깊이 신뢰하고 귀신에 얽매어 있어

이슬람과 유교, 천주교 등 다양한 종교를 연구해 온 선교신학자 이동주 소장의, '라마교와 그 수장 달라이라마'에 대한 분석 자료를 연재하여 라마교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주

- 1. 포스트모던 다원주의 문화에 들어맞는 달라이라마
- 2. 밀교 철학, 율법폐기론적 사상 추구로 사회 타락 우려
- 3. 달라이라마, 무당 깊이 신뢰하고 귀신에 얽매어 있어

## 4. 라마교의 개혁운동

결국 이러한 티베트 불교의 신앙적 성행위와 타락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재흥을 원하는 사람들이 11세기 동부와 서부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계율부흥 운동을 위해 인도 비크라마스라 승원의 대학승 아티샤(Atisa, 982-1054)가 티베트로 초청되었다. 그는 벵갈지방 샤희드국 왕자였다. 티베트에서는 아티샤의 활약으로 카담파(Bka'gdamspa)라는 최초의 종파가 형성되었다.

아티샤는 탄트라교의 대가이며, 탄트라교에서 불순한 요소를 제거하려 애썼다. 그의 가르침은 칼라차크라(Kala-cakra, 時輪教) 계통이다. 그는 티베트에 도착하여 깨달음에 도달하는 수행도를 가르쳤고, 그의 수행론인 "보리도등론"을 유명하다.

보리도등론은 성문승장, 바라밀승장, 진언승장의 순서로 되어 있고, 사람이 수행함으로써 점차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쳤다. 대승보살의 깨달음은 계율을 바탕으로 삼매에서 이루어지며, 그 깨달음은 성문승에서 바라밀승으로 그 다음 진언승으로 순차적으로 점점 완성된다는 것이다.

아티샤가 가르친 칼라차크라(시륜)의 '칼라'란 시간을, '차크라'는 궁극적 존재를 뜻한다. 즉 시륜이란 시간이 궁극적 존재라는 뜻이며, 그의 영원함을 의미한다. 반야와 방편이 둘이 아니며, 마음이 곧 부처고, 이 몸 그대로가 본초불(Adi-Buddha)이고 시륜불(Kala-cakra-Buddha)이며, 금강신(Vajrakaya)이다. 이는 인간이 궁극적 존재라는 것과, 인간의 본능과 남녀의 성욕을 긍정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륜교는 현실생활을 시간의 수레바퀴에 비교하여 본초불의 신앙으로 이 미망의 세계에서 탈출할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본초불과의 합일을 정신적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인식하며 체험하려다 성

적 타락에 빠졌다. 밀교의 이러한 성애신앙은 힌두교의 샤틀리신앙과 병행되는 것이다.

아티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생겨난 최초의 티베트 종파가 카담파이다. 그 개조는 동통이며 그 제자들은 '교계파(敎誡派)'와 '교설파(敎說派)'로 나뉘었다. 총카파(Tson-kha-pa)를 개조로 하는 신카담파와 겐룩파는 티베트 최후의 종파를 이루었다. 결국 겐룩파는 카담파를 흡수하여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오늘날 칼라차크라 법회를 열어 우주의 에너지와 정신적 에너지를 합일하여 주변에 영향을 미치려는 달라이라마의 메시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탄트라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칼라차크라가 어떤 종교의식인지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입니다.

영원히 윤회하는 시간의 수레바퀴를 뜻하는 외형적인 칼라차크라는 모든 우주를 말합니다. 내면적인 칼라차크라는 바로 육체이며, 칼라차크라 의식은 이 둘을 정화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러한 방편은 물론 공과 보리심,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깊은 사색과 명상을 하면서 만달라를, 그리고 우주적인 에너지를 형상화하는 의식입니다.

보통 칼라차크라 법회를 열면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에너지가 동시에 한 곳에서 집중되므로 매우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개인이 힘을 합치면 큰 짐을 들 수 있듯,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동시에 함께 모여 명상을 하고, 서로의 자비심을 개발해 나가면 개인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효과적이고 긍정적인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같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열린 칼라차크라 법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갈등을 줄이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는 불자들의 정신적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 칼라차크라 법회를 자주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부터 이어져 내려온 불교 교단의 오랜 전통입니다. 만일 칼라차크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면 더 많이 수행을 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부지런히 수행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타락한 홍모파를 개혁한 아티샤의 칼라차크라 의식은 오늘날 달라이라마의 위와 같은 칼라차크라 법회로 전승되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탄트라'의 더 없는 깨달음의 세



이동주 소장  
선교신학연구소

계가 보였듯, 시륜교적 합일의 원리에는 성적 타락의 가능성이 여전히 충분하게 잠재해 있다.

아티샤의 가르침을 따른 음란하고 마술적인 불교에 격분하여, 독신 생활과 엄격한 계율주의를 주장하면서 불교를 개혁한 사람은 총카파(Tson-kha-pa)였다. 그는 홍모파 사원의 마술도구를 다 부수고, 결혼한 여성들을 쫓아내고, 그 사원을 사교로 인정하여 새로운 사원을 설립했다. 그는 계율과 덕행을 장려하고 독신생활을 했으며, 순수한 불교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의 개혁한 종파를 갈덴파(Dgah-idan), 도솔교파, 또는 겐룩파(Dge-lugs-pa)라고 한다.

겐룩파는 원시불교의 걸식사문복장을 입고, 본교의 흑모와 종래의 홍모와 구별하여 황모를 써 황모파라고도 한다. 이 총카파의 3대 후계자를 달라이라마(Dalai-lama)로 칭하게 된 것이다.

## 5. 달라이라마의 신앙과 가르침

1) 달라이라마 선택법  
총카파의 제3대 후계자가 달라이라마이다. 달라이라마란 몽고의 지배자 알탄칸(Altan-khan)이 '큰 바다'와 같은 의미의 몽고어 '달라이(바다)'라는 칭호를 주면서 불리기 시작했다. '라마'는 스승을 의미한다. 달라이라마는 제5대 로장감초 때 몽고에게서 티베트의 주권을 물려받아 정치와 종교, 양대 권력을 잡은 법왕이 되었다.

티베트인들은 활발신앙이 있는데, 달라이라마를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판첸라마를 미륵보살 또는 아미타불의 화신으로 믿는다. 티베트인들은 이 관음보살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열반에 들지 않고 다시 인간으로 환생한" 13대 달라이라마였다고 믿고 있다. 달라이라마는 독신이기 때문에 세습할 수 없고, 오히려 계속해서 전생하는 활발이 된다고 한다. 달라이라마는 죽기 전 그가 전생할 장소를 예시하고, 또 삼매사에서도 신탁(神託)이 그가 전생할 지방과 집과 양친을 자세히 예시한다고 한다.

그의 환생은 관음상과 같은 특징

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 모양은 ①두 다리에 범의 가죽과 같은 특징이 있고 ②길쭉한 눈썹과 눈이 밖으로 향해 있고 ③큰 귀가 있고, ④견갑골 근처에 관음의 두 다리를 표시하는 두 근육이 더 붙어 있고 ⑤어떤 손바닥 위에 소라 같이 말린 인이 있어야 한다. 이런 소년이 선택되면 그는 양친을 떠나 승려에 의해 교육을 받고, 법왕으로 추대된다.

오늘날 '달라이라마'라고 일컫는 제14대 달라이라마는 1935년에 티베트 동북지방 탁처라는 마을에서 출생했다. 그는 두 살 때 이미 제13대 달라이라마의 화신으로 인정받았고, 네 살 때 랏사의 포탈라궁으로 옮겨졌다.

## 2) 달라이라마의 혼합주의 신앙

이와 같이 티베트의 라마불교는 샤머니즘과 혼합된 불교로 신이나 귀신과 교접하며, 일상생활의 문제들을 무당에 의지해 결정한다. 달라이라마의 후계자로 태어나는 아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달라이라마의 전생자(轉生者)인데, 그 아이를 결정하는 일을 랏사에 있는 "호법원(護法院)에서 영험에 의해서 예시를 받는다"고 한다.

티베트 신관(神官)들 중 중요한 신관은 네충(Nechung)이다. 이 네충은 도르제 드라크덴(Dorje Drakden)이라는 신이며, 그는 티베트 망명정부와 달라이라마의 수호신이다. 달라이라마는 이 네충에게 자문을 구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네충쿠텐(영매)에게 대리수상직(deputy minister)을 맡겼다.

달라이라마는 네충의 책임과 역할에 관해 그의 자서전에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수백 년 동안 새해 명절에 달라이라마나 정부가 네충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 왔다. 그리고 달라이라마나 정부가 특별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더욱 그러했다. 나는 1년에 여러 번 네충과 접촉한다. ... 나는 신을 국회로 치면 일종의 상원(上院)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 카샤는 하원(下院)이 되는 것이다. 다른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국가의 중대사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상·하원 두 곳의 의견을 공히 듣는다. 어느 면에서는 티베트에 대한 네충의 책임과 달라이라마의 책임은 동등한 것이다. 지도자로서 나의 업무는 평화적인 것이지만, 수호자와 방어자로서 네충의 임무는 더 투쟁적이다. 그러나 우리 역할이 비슷하기는 하나, 나와 네충의 관계는 사령관과 부하 장교의 관계와 같다. 나는 그에게 절하지 않는다. 오히려 네충이 달라이라마에게

절한다. 그렇긴 해도 우리는 매우 가까운 사이여서, 거의 친구나 다름없다. 내가 어렸을 때, 네충은 나를 몹시 좋아했고, 항상 끔찍이 돌봐주었다. 내가 열네 살쯤 되었을 때, 신탁을 구하던 도중 특별한 사례가 있었다. ... 네충과 접촉하기는 결코 쉽지 않다. 그를 접하고 그의 의견을 듣는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는 매우 무뎠으며 오만한 편이다."

달라이라마의 자문인 네충쿠텐은 하나의 '습득무당'이 아니라, 진실한 무당이다. 참 무당은 무병을 앓고 난 후 귀신의 강신을 체험하고, 자유롭게 강신할 수도 있다. M. 엘리아데(Mircea Eliade)와 마찬가지로, 유동식·최길성 박사 같은 무속 연구가들은 무당이 되는 첫 단계가 그 소명을 증명하는 무병임을 밝혔다.

무당들의 신비 체험은 공포와 혼돈과 함께 겪는 죽음의 상태와 재생 체험이다. 신과의 교제가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롬 14:17)"이 아니라,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짓밟히는 무서운 고통이다. 무당은 이러한 무병을 통해 성립되며, 그에게 귀신이 내려 강요함으로 말미암아 무당이 되는 것이다.

무당의 점신 형태에는 두 가지의 신비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엘리아데가 북부 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 도처의 샤머니즘을 연구하며 수집한 신비 체험으로 사람의 영혼이 타계하는 것, 또 하나는 한국 무당들이 흔히 체험하는 강신 현상이다. 달라이라마가 고백한 네충쿠텐의 귀신 들린 현상도 이와 병행되는 것이다. 샤머니즘은 이러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티베트의 활발'이라는 달라이라마의 환생신앙과 같은 확고한 영혼불멸 신앙과 귀신신앙을 전승하게 되는 것이다.

## 결어

2000년 4월 5일자 뉴스위크 한국판은 "불교도인 내 눈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는 대오각성한 존재이거나 지고한 영적 깨달음을 얻은 보살"이라고 한 달라이라마의 주장을 신고 있다.

티베트 불교는 인간의 마음을 빼앗는 강신 체험의 종교일 뿐 아니라, 달라이라마 자신이 무당을 깊이 신뢰하고 도르제 드라크덴이라는 귀신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얽매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악령에게서 해방하며 죄 사함을 받고 참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한국교회의 복음 전도와 중보기도가 시급하게 요청된다. (끝)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 “미국내 가장 큰 차별”

## 동성결혼 반대 기독교인들에 대한 차별



바비 진달 주지사 © Gage Skidmore/ Wikimedia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미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장 큰 차별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진달 주지사는 전통적 결혼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지적했다. 17일 캘리포니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열린 CNN 방송의 첫 공화당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진달 주지사는 종교자유 침해 문제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이 집중해야 할 문제는 전통적 결혼에 대한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캘리포니아 주 법원 서기인 킴 데이비스가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법정구속되었다가 풀려났던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데이비스는 “동성결혼 증명서 발급은 내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이므로 할 수 없다”며 법원 명령을 거부해 왔고, 지금까지도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 결과 미국인 대다수는 데이비스의 법정구속이 당연하다는 생각

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가 공동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인 성인 74%는 ‘평등’의 가치를 옹호하며 데이비스에 대한 처사가 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진달 주지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차별은 전통적 결혼의 가치를 지지하는 기독교인 사업자이나 개인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진달 주지사와 함께 예비 대선 후보 자격으로 참석한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는 그와 반대로 데이비스가 법을 어겼으며 비판을 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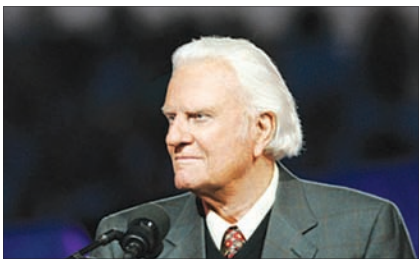
그는 “미국의 법은 하나뿐이고 정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내 신념과 어긋나니까 그 법은 따르지 않겠다”고 말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토론자인 릭 샌토럼 전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법이 부당하면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그는 “연방대법원의 6월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에 반대하는 이들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랬듯 부당한 법에 대항해야 한다”고 했다.

# “미 국회의사당에 빌리 그레함 동상”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에 20세기 최고의 복음전도자요 영적 지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의 동상이 세워진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국회의사당 내에는 미국 각 주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의 동상이 들어서 있는데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경우는 전 주지사인 찰스 브랜틀리 에이콕의 동상이 있었다. 그러나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는 이를 빌리 그레함 목사로 대체하려 한다.

주 상원은 최근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하원에서는 지난 4월에 이미 통과됐다. 덴 주석 상원의원(공화)은 17일 법안 통과 후 “각 주는 위대한 업적과 성취를 이룬 각 주의 대표적 인물 두 명의 동상을 기증할 수 있다”면서 “많은 위대한 노스캐롤라이나인들이 있지만, 빌리 그레함보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인물은 많



빌리 그레함 © 빌리그레함 전도협회

지 않다”고 말했다. 존 블리스트 의원(공화)도 “빌리 그레함은 수많은 미국인들과 전 세계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면서 “국회의사당의 동상에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 누구겠는가?”고 법안에 동조했다.

이에 따라 팻 맥크로리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이 법안은 정식 통과돼 국회의사당에 빌리 그레함상이 세워지게 된다.

# “무슬림 대통령은 안 돼”

## 공화당 대선후보 벤 카슨 무슬림 발언 논란



벤 카슨 미공화당 대선후보 © 위키피디아

림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절대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슬람 종교가 미국의 헌법과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대선후보의 신앙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가치 및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라면서 “무슬림은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 후 다른 공화당 대선후보 측과 민주당 측은 물론 미국 내 이슬람 단체들이 반발하는 등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카슨은 같은 날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과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카슨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는 미국의 헌법, 미국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취임 선서는 코란(이슬람 경전)이 아니라 성경에 대고 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카슨의 대변인도 카슨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 대선후보 중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신경외과 의사 출신의 벤 카슨이 20일 무슬림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카슨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 미국에서의 무슬림 대통령 선출에 대한 질문에 “나는 무슬



**LA 지역**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양하고, 이민 2세를 책임지며, 이민 가정들을 섬기며,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 새벽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 새벽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연제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 선교교회**  
내 지경을 넓히라, 믿음으로 성령하고, 사랑으로 하나되며, 소망중에 기뻐하라  
927 S Bonnie Brae St, Los Angeles, CA 90006  
T.(213)910-95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반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션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 735-6412 / gmcchurhc.com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예배 오후 1:00 토요일부부 토 오전 9:30-12:30  
한어청년부 오후 1:30 아나기도모임 수/토 10:30

**서건우**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939-7323 / www.kwpcp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김광삼**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화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성령공부 오후 7:30 (화) 오전 6: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일양배(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조인수** 담임목사

**산타모니카찬송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s.us

영어예배: 주일 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신현호** 담임목사  
성령공부: 주일 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하늘 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조인수** 담임목사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1부예배 오전 8:00 열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레이언함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김요섭** 담임목사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서/목/토/일) T.(213)380-0071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령 (정부 배네티프 전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 메디칼, 임신부 메디칼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요한 선교교회**  
gkal44@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양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호응, 소.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민중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블라세(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hyu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양배 오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양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행복이 있는 성령과 진리의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김범수** 치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 지령 500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기/독/일/보**

# 발행을 축하합니다!



### 편집고문 축하사

## 복음의 증거자, 진리의 파수꾼

박희민 목사(성시화운동본부 미주 대표회장)

지령 500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기독일보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와 정보를 전달해 주고 혼탁하고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참된 복음 증거자와 진리의 파수꾼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4년 1월 2... 하드리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가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도 중단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꾸준히 내용이 알차고 충실한 기독언론으로서 성장, 발전해 오며, 교계 연합과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서도 많은 기여를 하며 달려온 귀사의 5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바른 가치관과 비전을 통해 건강한 교계와 교인 사회를 만들어 가며, 특별히 2014년 1월부터는 차세대 리더들을 세워가기 위해 영어판 인터넷 신문을 발간해 1세대와 2세대를 이어주며, 영어권 세대를 네트워크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일보의 노고와 열정, 그리고 사명에 대해 크게 치

앞으로 1000호, 2000호를 향해서 더 큰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며 발전해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복음의 선한 싸움 계속 하라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수영로교회 원로 정필도 목사님을 종종 뵈고 식사하는 것은 제게 큰 기쁨입니다. 그 때마다 그분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만 불짜리 교회를 밥 한 끼 먹고 가르쳐 준다"며 하신 말씀입니다.



크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기독일보의 500호를 보며 감사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교계의 좋은 일에 열심이었던 점입니다. 가능한 한 나쁜 일을 보도하지 않으려 노력한 점을 높이 사고 있습니다. 나쁜 일을 보도하면 독자의 흥미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고 목사! 설교 준비를 할 때든, 설교를 할 때든, 언제든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을 보며 말씀을 전하고 설교의 내용도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을 전하라. 그러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악(나쁜 것)을 보고 악을 생각하며 악을 말하면 악으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생각하며 좋은 것을 말하면 좋은 쪽으로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제 목회에

500호에 이르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온 기독일보의 여러 수고하는 일꾼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계속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급변하는 상황, 불변의 진리 전하라

이정근 목사(미성대학교 명예총장)

'한 손에는 성경, 다른 손에는 신문'이라는 명언을 남긴 인물이다. 20세기 최고신학자 칼 바르트가. 신학연구 목회는 바로 불변의 진리를 케어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시대에 맞도록 변형시키고 보급하는 전략이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기독일보도 그 제호가 바로 이것을 웅변한다. '기독'(Christianity)은 불변의 진리이고 '일보'(daily)는 바로 급변하는 시대를 뜻한다.



히 허위라는 말로 표현한다. 매스미디어가 허위 사실을 보도한다면 그것은 자살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기독교 언론은 철저히 기독교의 정통적 진리를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진리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야 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포도주는 진리를

뜻하고 부대는 시대 상황 혹은 삶의 현장을 의미한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는가."(고전14:8).

기독일보가 이 두 가지를 두 손에 붙들고 고군분투해 온 것에 박수를 보낸다. 때때로 그런 점에 미흡하다는 독자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해 왔다. 지령 500호를 즈음해 새로운 세대들을 위한 영문판도 확장한 것은 바른 선택이다. 앞으로 더욱 더 힘써서 성삼위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언론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 기독언론의 필봉을 드소서!

(筆鋒)

이상명 목사(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기독일보가 지령 500호를 맞이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4년 1월에 미주 땅에 기독교인 신문으로 창간되어 지금까지 한인 이민교회와 사회에 말길과 글길을 열어주어 우리 한인 크리스천 이민자들이 섬과 같이 고립되지 않도록 제 역할을 감당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곳 미주 지역에도 많은 기독언론매체가 있지만 기독일보가 기독언론의 정진에서 벗어나지 않고서 이제껏 좋은 소식과 바른 소식으로 이민 교계와 사회에 유익을 주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신문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근 인터넷과 첨단 미디어로 인하여 인쇄 문화의 쇠퇴와 함께 기독교 언론사역이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함께 특정 교단이나 교회 흥부지로 전략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계와 사회의 다양한 소식을 복음에 담아 격조 있는 내용과 깔끔한 편집으로 제작하여 우리 크리스천 이민자들의 눈길과 손길을 가게끔 만든 기독교 신문이어서 제 개인적으로 남다른 애정이 가는 신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독일보에 저는 기대 또한 큼니다. 지령 500호를 발간하

기까지 결코 녹록치 않은 여정이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여정보다 앞으로 가야할 여정이 더욱 험난하고 거칠 것이라 내다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필봉(筆鋒)에 바른 크리스천 지성과 영성의 잉크를 적서 인쇄된 신문이 있는 한 우리에게 여전히 밝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신문은 아침에 눈을 떠서 드리는 경건한 기도처럼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에 공명시켜 세속의 유혹에 흔들려 취해 잠자는 우리를 흔들여 깨우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령 500호를 맞이하여 기독일보가 미주 지역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흩어진 크리스천 인구를 위한 대표적인 기독교 신문으로 도약할 날을 꿈꾸어 봅니다. 그리고 그 필봉을 바르고 균형 있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염원하신 주님의 뜻이 가득한 신문이 되어 주소서!

## 1세의 신앙 유산

## 차세대들에게 전하길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

창간 당시 참신하고 모범적인 기독신문으로서 교계에 신선한 새 바람을 일으켰던 기억이 생생한데, 500호를 발행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월의 흐름에 조금도 퇴색되지 않고, 시대적 조류에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오직 복음 진리에 굳게 서서 기독교 문서 사역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는 기독일보를 보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작년 1월, 창간 10주년 기념예배와 더불어 시작된 영자신문을 통해 이제 1세대뿐만 아니라 2세와 3세대들에게까지 복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독일보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민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선물임에 분명합니다.

기독일보의 이 귀한 문서사역을 통하여 이 땅의 한인교회들이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1세 부모 세대의 아름다운 신앙 유산이 영어권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어지며, 교회 안에 많은 차세대 리더들이 배출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 "기독일보 5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다음 세대 한인 디아스포라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우는 영적 사관학교"

www.ptsa.edu

1-20 발행

※ 전 세계 21개 지역노회로 구성된 해외한민족교회(KPCA) 총회 직영신학교인 본교를 졸업하면 본 교단 목사교사는 물론 예장통합(PCK) 목사교사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본 교단 소속 노회에서 안수 받은 뒤에는 협력교단인 예장통합과 미국장로교(PCUSA) 소속 노회로 이영이 가능합니다. 유학생 가족(2인)도 학위취득 가능합니다.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이상명 박사  
이사장 박성규 목사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 Fax. (562) 926-1025 / office@ptsa.edu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교회를 위한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기독일보 5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ATS 인가)  
- 100% 한국어  
- 1-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혜택



박성진 학장

박사과정(한 주간, 인턴십으로 강의)  
성경사역학철학박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교육목회학 박사  
목회학 박사  
목회학 석사

석사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K.MTS)  
신학상담학석사(K.COUNSELING)  
온라인 신학선교학석사(K.MTS with MISSIONS)

http://www.mbts.edu/academics/koreanstudies/

연락처(816)414-3754, ks@mbts.edu



하나님 말씀 전수하고 세계 선교하는 언론



강신권 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500호의 신문을 발행하며 미주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기독교 정론지로 성장한 기독교일보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단순한 숫자에만 만족하지 말고 더욱 활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계 선교에 헌신되기 위하여 걸음을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교계의 연합과 일치에 도모하며 정론직필로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할 수 있는 선지자와 같은 언론으로 더욱 우뚝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신앙의 세대 계승 위한 소통의 장

그동안 기독교일보는 문서사역을 통해 1세와 2세를 아우르는 교량 역할을 해 주었고, 이민교회의 최대 과제인 '신앙의 세대 계승'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열어 주었으며 타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기독교일부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5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근면과 성실, 넓은 시각 돋보여



윤우경 집사 OC기독교평신도 연합회 회장

기독교일보의 500호 발간은 남다른 근면과 성실, 신숙함, 더불어 필진의 넓은 시각이 있었기에 한결 더 빛이 납니다. 열약하고 피폐하기 그지없는 "교계 언론"이라는 "최악의 선교 오지"에서 생존을 넘어 오히려 성장을 꿈꾸며 차세대에 대한 책임 의식을 잃지 않으려는 지대한 노력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순간 순간 맞닥뜨릴 "예"와 "아니오"의 기로에서 항상 바르고 건강한 선택을 하는 일에 결코 망설임 없는 신문이 되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독교일보의 분투에 감사와 박수를

인간의 이상과 가치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고 가려지는 시대에 빛과 소금처럼 기록함과 진리,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드러내는 데 앞장서는 소중한 기독교일보의 분투에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선한 일에 지지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상희 교수 골든게이트신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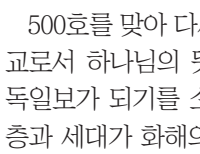
온 세계에 긍정적 영향력 확산해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교회

앞으로도 미주 한인사회는 물론, 온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기독교일보, 따뜻하고 힘이 되는 뉴스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고, 부유케 하는 그런 좋은 소식(Good News)의 전령관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민사회에 생명력 있는 신문으로



임경남 목사 토기장교회

500호를 맞아 다시금 교계와 한인 사회를 잇는 가교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는 소중한 기독교일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계층과 세대가 화해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이민사회의 생명력 있는 신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음성에 중심 두고 사역하라



김경렬 목사 산타모니카찬송교회

기독교일보는 사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중심을 두고 좌우로 치우침 없이 은혜롭게 기사를 다루어 명실상부한 기독교 대표 언론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어 신문 등 앞으로도 변함없이 세대간의 소통과 연합을 위해 많은 일을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이 시대의 향도 역할 다하는 신문 되기를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

먼저, 기독교일보의 지령 500호가 있기까지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찬사를 드립니다. 500호라는 것은 10년 세월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산도 변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신문을 만들어서 이민사회를 선도하신 분들의 수고가 참으로 대단하였다 싶습니다.



신문의 필요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달리는 말에게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말이 있듯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언제부터가 기독교일보를 눈여겨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선 읽을 게 많고 목회자로서 좋은 정보가 가득한 신문이기 때문입니다. 여타의 신문에서 보지 못한 신선한 편집뿐만 아니라 영감이 있는 기사들, 감동을 주는 칼럼니스트들의 글들, 그리고 지식의 깊이를 더해주는 책들을 소개한 코너, 그리고 2세들을 위한 배려로 만들어진 영문판까지 대할 때마다 참 좋은 신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는 최대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는 기독교

더해주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다수의 입장도 소수의 입장도 대변해주는 균형 잡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민교회는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언론조차 대형교회의 목소리 듣기에 바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경우 약자들은 신문을 보면서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작고도 얼마든지 강할 수 있고, 또한 건강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이민 1세와 2세들의 가교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일부가 1세들에게는 2세들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2세들에게는 더욱 1세와의 간격을 좁힐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면 더욱 좋은 신문으로 거듭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지령 500호의 발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시대의 향도 역할을 다하시는 신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지령 500호”

류종길 목사(미성대학교 총장)

기독교일보가 무분별한 매스 미디어 속에서도 구별된 문서선교 매체로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일보가 미주 전역에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신속한 정보와 아울러 많은 신학과 신앙의 정론지가 되어 목회하는 분들에게는 친구가 되어주고, 성도들에게는 희망과 위로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읍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보라”

【롬 10:15】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도덕이나 사랑이나 용서나 남을 돕는 진정성과 선한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기름부음으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쓰임 받는 기독교일부, 목회자들에게는 좋은 정보,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쉼터가 되는

기독교일부, 신앙의 기초석을 놓을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독교일부, 신앙과 신학의 바른 언론 매체로서 소망을 주는 기독교일부,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과 기독교의 사상과 정신을 전달해주는 기독교일부,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기술로 문서선교의 Best와 First가 되는 기독교일부,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독교일부, 빠른 정보, 넓은 시야, 깊은 판단, 객관적인 기록을 남기는 기독교일부, 진리의 수호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독자들에게는 사랑 받는 기독교일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기독교일부! 미주 이민사회와 교계에 예언자적인 사명과 복음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위와 같은 축복이 항상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할 때 ‘예,’ ‘아니오’ 할 때 ‘아니오’

기독교일보 지령 500호를 축하드립니다. 짧은 기간 동안 미주 기독교인들의 정직하고 담대한 영성을 책임지는 기독교언론으로 꾸준히 자리매김 해 온 기독교일보의 전 임직원들께 축하와 아울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문이라 저도 그동안 더욱 관심을 갖고 애독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이며, 서로의 허물을 파헤치기보다는 덕을 칭송하고, 분열보다는 화합을 도모하는 기독교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에서, 이런 정직함과 담대함의 능력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기독교의 전통과 역사를 소중

히 여기나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신학이나 전개에 포용적이나 복음의 핵심에선 타협하지 않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기독교일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마동환 변호사 마동환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아름다운교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2015년 말씀 사도행전 4:33-35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발과 집 있는 자는 팔이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



고승희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주소 및 전화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beautifulchurch.org

기독교일보
“5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GLOBAL MISSION CHURCH 글로발선교교회

글로발선교교회의 사명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사역2기 3대 비전

- "The Church Vision" (1세들을 위한 비전)
"The Church within Church Vision" (차세대를 위한 비전)
"The Church Planting Vision" (사명을 위한 비전)



김지성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월-금)
오전 6:00 (토)

주소 및 전화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CA 91765
T. (909) 396-4441 / F. (909) 396-1777
www.igmc.org

기독교일보
“5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 복음의 능력 증거하는 기독언론 되어야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기독일보 500호 발간을 온 성도와 함께 기뻐하며 축하드립니다. 정보화 시대답게 홍수와 같이 엄청난 양의 정보가 빠른 속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과 빠른 속도의 정보 속에서 복음주의를 수호하며 선교와 교회 연합과 일치, 그리고 기독교 문화의 창달을 바르게 이루어가기 위해 힘쓰며 500호를 발간하게 되었으니 그동안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기독일보의 임직원 모든 분들에게 박수와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전달되는 많은 정보와 소식이 있지만 생명의 감

격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심령의 답답함이 있는 것은 세상과 사랑에 가려 복음의 빛이 잘 비추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복음과 정면으로 만나서 절망적일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이 감당치 못할 죄도 없고 복음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을 살리는 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다가 삶이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될 복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홍수로 물이 넘쳐날 때에 오히려 마실 물을 구하기 어려운 것과 같이, 사람이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것처럼 비난과 정죄의 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신문들과는 다르게 독자의 마음과 생각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성령의 불붙는 글이 가득한 기독일보가 되어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 편집고문 축하

# 이민사회 기독 정론지 기독일보

민중기 목사(충현선교교회)

귀한 기독일보가 발간된 후 벌써 500호에 이르렀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민사회의 기독 정론지로서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이민 사회에 좋은 자료를 제공한 것을 생각할 때, 그동안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아니한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독일보의 기자들은 언제나 교회와 기독교 단체의 최선봉에서 있었습니다. 늘 현장에 충실한 일꾼들이 기사를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발로 쓰는 사람처럼 부지런하게 다녔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이르러서는 영어권에 접근하여 1.5세, 2세를 위한 소식까지 전함으로 아름다운 미래의 소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혼돈한 포스트 모던 시대를 맞이하여, 건실한



신학적 기초와 굳건한 복음적 교단들과의 유대 속에서 널리 귀중한 소식을 전하면서 무

궁한 발전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문서를 통한 복음 전파의 소망 가운데서 혼신을 다하는 사랑하는 모든 직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 드리면서, 축사를 대신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험통한 미래의 열림을 기대합니다. 늘 많은 독자와 필자의 연합된 관심과 사랑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고하며 헌신하신 이민규 사장님과 직원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더욱 창대한 발전을 이루고 영혼을 살려내는 유익하고 모범적인 기독일보가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교계의 인정과 사랑받는 기독일보

송승명 목사(월드미션대 총장)



기독일보가 500호를 발간하게 되었다니 함께 기뻐하고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기독일보 보는 초기

에 교계에서 구설수에 오르내리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소리가 별로 들리지 않는다. 편집 방향이나 기사 내용들을 살펴 보면 흠을 잡을 만한 내용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고 타 신문에서 잘 다루지 않는 문화 콘텐츠로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다가가고자 모색하고 있다.

영어 신문과 온라인 신문도 잘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교계로부터 인정 받고 사랑 받는 신문으로 다가가 주기를 바란다.

# 변화하는 세상에 등대처럼

곽덕근 목사(샌퍼난도밸리교협 회장)



해하는 배들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등대의 불빛처럼 복음의 진리로 세상을 인도하는 기

독일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침반처럼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교회의 영적 갱신을 돕는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랍니다. 기독일보를 통하여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더욱 많이 퍼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여 기독일보가 계속해 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믿음으로 문서 선교에 혼신 다해

박용덕 목사(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발한 기독일보가 어언 500호를 발간하게 된 것에 대해 축하를 드리며 또한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문서 선교 사역에 혼신의 힘을 다 쏟은 임직원 여러분들에게도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저 역시 이민 목회를 하면서 매주 기다려지는 신문 중에 하나가 기독일보였음을 생각해

보면, 기독일보와 궤를 같이 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미주 이민 교계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할 뿐 아니라 시대적 요청과 상황을 따라 발생하던 여러 이슈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며, 또한 오늘날 이 땅에는 어떤 일들이 일



어나고 있으며, 우리 기독교와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우리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매우 날카로운 눈으로 보여주면서 이민사회의 크리스천들을 믿음 안에서 잘 선도해 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 동안에 이민 기독교 사회에 끼친 영향이 막대한 가운데 이제 500호를 돌파하게 되었으니 정말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복음과 진리의 편에서 서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이라는 비전을 불붙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미주 한인 기독교 교계를 주도해 나가는 신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라건대 캄캄한 바다 위를 항

# 미약한 시작 놀라운 성장

정우성 목사(남가주광영교회)

“한 손에 뉴스! 한 손에 성경!”을 균형있게 꼭 잡고 나가는 기독일보.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함으로 크게 성장하여 이민사회에 우뚝 솟은 모범적인 언론의 장, 기독일보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를 살피우는 영성 있는 글의 필요는 우리에게 절실한 현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소식이 실린 기독일보는 예수의 편지가 되어 왔습니다.

최근 인터넷 신문, 영어 신문까지 확장되어 어렵고 힘든 이민사회뿐 아니라 젊은층 독자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



게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섬기고

고하며 헌신하신 이민규 사장님과 직원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더욱 창대한 발전을 이루고 영혼을 살려내는 유익하고 모범적인 기독일보가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 성경 위에 굳게 서서 정론 제시하길

주해홍 목사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기독일보는 사회와 교회가 더불어 혼탁해져 가는 이 시대에 귀한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회복하고 세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귀한 언론으로

서서 이민사회의 정론을 제시하길

서의 문서 사역을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잘 담당하셨습니다.

혼합주의와 다원주의로 세상은 갈수록 더욱 더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 복음의 기초를 잃어가고 있는 이때, 부디 기독일보만은 성경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교회와 세상에 우리 주님의 바른 길을 보여주며 앞장서 이끌어 나가는 기독 정론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 나침반교회

## 나침반교회의 사명(Mission) 선언

“우리의 사명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기쁨으로 모여 제자를 삼고, 초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충만하여 흠어져 21세기를 섬기는 것이다.”



민경엽 담임목사

## 나침반교회의 비전(Vision) 선언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며, 역동적인 제자훈련을 통해 지역사회와 세계를 섬기는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 예배시간 안내

- 1부예배 오전 8:00
- 2부예배 오전 11:00
- 영 유아부 오전 11:00
- 유 초등부 오전 11:00
- 중고등부 오전 11:00
-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 EM, 대학부 오후 1:30
-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 주소 및 전화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 (562) 691-0691 F. (562) 691-0698  
[nachimban.org](http://nachimban.org)

기독일보 "500호 발간행을 축하합니다"

2015년 베델의 표어

# MISSION 1.8

“기독일보 500호 발간행을 축하합니다”

- 역동적 복음 복음으로 살아 움직이는 교회  
GOSPEL DRIVEN
- 능동적 선교 독창성과 추진력이 아우러진 선교  
MISSION INITIATIVE

알바인에 위치한 베델한인교회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주일 1부 예배: 오전 7:15 / 분당  
주일 2부 예배: 오전 9:00 / 분당  
주일 3부 예배: 오전 11:00 / 분당  
주일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 분당  
수요 예배: 저녁 7:30 / 분당  
토요 헬시바 새벽 기도회: 새벽 6:00 / 분당  
새벽 기도회: 화-금 새벽 5:30 / 분당



담임: 김한요 목사  
Rev. Bryan H. Kim, Sr. Pastor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 854-4010 • Fax (949) 854-4018 • 수음판 (949) 943-9697  
www.bkc.org • email: [bethel@bkc.org](mailto:bethel@bkc.org)



# 아름다운 발로 감동 찾아내

김성민 목사(남가주새소망교회)

기독교일보가 500호를 맞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500호 동안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독교일보는 참으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행복한 교회와 행복한 성도들의 이야기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지역과 또는 세계 저편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와 사진들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행복한 소식들을 접하지 않고 살았다면 사역의 길을 홀로 가는 줄 착각하며 참으로 외로울 뻔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일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었음을 깨달았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일보가 더욱 이 세대의 인도자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살면서 오히려 세상의 이야기들을 잘 듣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과 같은 긍정적인 이야기들, 행복한 이야기들, 회복의 이야기들, 복음 전도의 이야기들을 하지만 기도의 제목들, 안타까운 이야기들, 함께 울어야 하는 이야기들



을 많이 실어 주시고 사진으로 보여 주셔서 쉽게 좁아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분들의 가슴에 메시지를 깊이 전달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감동”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거리감을 느낄 정도로 가슴이 냉랭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을 풀어주는 신문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신문사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더욱 잡 못 이루며,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로마서 10장 15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발로 멀리 뛰어 다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이 일을 귀하게 여기며 많은 기도와 물질의 도움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순수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최병수 목사(시카고 벨엘장로교회)

그 어느 때보다 언론 매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언론은 단숨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도록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뜻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등불, 기독교일보를 세우시고 500호를 발간하게 되었으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독교일보와 저와의 만남은 그리 오래지 않습니다. 2008년 12월 당시 이인규 국장님(지금은 대표)과 저의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당시의 국장님은 언론인 같아 보이질 않았었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눈빛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기독교언론인으로 사명도 확실하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기독교일보 대표가 되셔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도 꿋꿋이 기독교일보를 지켜나가시는 모습에 진한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일보에 기대하는 것은 지금까지 지켜 오신 순수함을 오래 오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매체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듯한 세상에서 기독교 신문 고유의 영역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이 기독교일보를 통해서 이 시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 중심의 신문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멧 있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에 아버지로부터 배운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말씀이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남의 땅 블레셋에 가서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었고, 양보하면서도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우물을 빼앗기고 그 땅에서 쫓겨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은 후 오히려 자기를 해한 자들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창세기 26장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독교일보가 많은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잡힌 신문이 되어 이 시대 언론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신문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 복음의 불모지까지 굿 뉴스 전하길 응원합니다

최병락 목사(달라스 세미한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는 굿 뉴스(Good News)라고 합니다. 뉴스는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정직한 보고의 책임이 있기에 뉴스의 내용으로 세상의 방향과 흐름을 알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뉴스라는 가치중립적 단어 앞에 ‘굿’이라는 단어는 여간 반가운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일보에게 고마운 것은 지난 5백 번의 신문에 올라오는 뉴스들 중에 고마운 기사들이 많았고,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숨겨져 사라질 수 있는 미담들에 귀를 기울이고 묻혀



이 뚜렷이 보여졌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들만 할 수 없어, 때로는 가슴아픈 이야기들, 어두운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지면에 실어야 할 때도 기독교일보는 따뜻한 마음을 녹여내는 데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냉소가 아닌 함께 하는 아픔이었고, 고발이 아닌 하나님의 경고였으며, 비난이 아닌 진심으로 제자리를 찾기 원하는 바람을 담아 내었습니다.

앞으로 기독교일보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과 사람 사랑이라는 대계명에 소홀하지 않는다면, 기독교일보는 나중 영광이 이전보다 창대할 것입니다. 부디, 굿 뉴스를 실어 복음의 불모지로 복음을 실어나르는 기독교 신문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 기독교적인 헤안과 바른 신학으로 정론 전하라

박성진 목사(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아시아부 학장)

기독교일보 500호를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포스트모던 사회는 유례없는 혼돈의 시간을 우리에게 던져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절대적인 가치로 지켜 온, 남자와 여자 간의 결합이라는 결혼에 대한 정의조차 거들떠 보지 않고 신의 존재를 케케묵은 논란 정도로 취급하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 상황 때문에 참된 복음의 가치를 수호해 온 기독교 정론지, 기독교일보 창간 500호를 축하하기에 앞서 자괴감이 먼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회의 역사도 110년이 넘었고 한인 수만 해도 일 부에서는 3백만이 넘었다고 할 만큼 비약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일본인은 모이면 기업을 세우고 중국인은 식당을 세우고 한국인은 교회를 세운다”는 말처럼 한인 이민사



회는 교회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만큼 한인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은 아직도 대단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기독교는 총체적인 부패, 알력과 도덕적 탈선으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비판을 면치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시대를 직시하지 못하고 자본주의와 성장 위주의 전박한 신학에 안주하여 바른 복음주의 신학과 신앙을 통합하여 실천하지 않는, 다시 말해 진정한 회개가 없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미주 기독교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한인 이민교회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교회적, 사회적, 정치적 현안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독자에게 전달하는데 있을 뿐만 아니라, 바른 성경적인 가치를 바탕으로 이민교회가 바르고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기독교일보는 미주 기독교언론의 대표 주자로서 주어진 사명에 신실하게 반응하며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시대적인 위기 속에 대표 기독교언론으로서 시대를 꿰뚫는 기독교적인 헤안과 바른 신학을 바탕으로 한 정론을 미주 이민 한인교회에 지속해서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시 한 번 5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 행복한 신문 거룩한 신문 오아시스 같은 신문

안세광 목사(팜데일 두드림교회)

기독교일보 지령 5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귀한 신문을 만들기 위하여 오직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보내셨다는 소명과 사명으로 500호까지 묵묵히 달려오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은혜의 지령 500호, 다시 소망의 지령 1000호를 향하여 오직 뜻대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십시오.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은 기독교일보가 되기 위하여 부탁을 드립니다.



시대 속에서 정말 모두의 아픔을 공감하며, 작지만 따뜻한 감동을 주는 일상의 이야기들을 통해 사람들과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래서 받아 볼 때마다 행복을 주는 신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거룩한 신문이 되어 주십시오! 수많은 정보들이 난무하지만 그러나 정말 정크와 같은 소식들이 쏟아지는 시대 속에서 기독교일보가 또 하나의 신문이 아닌 정말 뭔가 다른 신문이 되어 주십시오. ‘유행’이 아닌 ‘진리’를 전하는, ‘빠름’이 아닌 ‘다름’을, ‘따름’이 아닌 ‘다름’을 추구하는, 그래서 읽을 때마다 거룩을 생각나게 하는 신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어디엔가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기독교일보가 오늘 우리 교회와 세상에 그런 오아시스입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 남가주새소망교회

- 1) 뜨거운 열정의 예배가 있는 교회
- 2) 서로를 사랑하며 많이 웃는 교회
- 3) 전도하며 회복 받아야 할 자들을 찾아 인도하는 교회



김성민 담임목사

### 교회모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 주소 및 전화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626)872-2405, (503)332-1941  
 담임목사님 email: nhcscjason@gmail.com  
 www.newhopechurchla.com

### 방송설교 안내

AM1190 - 수요일 오후 5시  
 AM1650 - 금요일 오후 11시  
 AM1230 - 토요일 오후 10시 10분  
 CHTV 18.88

### 기독교일보

“500호 발간행을 축하합니다”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 ECO 선한목자교회

선한목자 장로교회의 비전은 열심히 배우고(교육), 함께 일하며 (사역/봉사), 은혜롭게 예배드리고(예배),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전도/선교)사랑의 공동체(교제)를 이루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고태형 담임목사

###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 기독교일보

“500호 발간행을 축하합니다”

### 주소 및 전화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sunhanchurch.com



# 낙태아 장기 매매 단체 지원 중단 법안 美 하원 통과

최근 가족계획연맹 측이 낙태아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판매해 온 사실이 폭로돼 큰 논란이 있었다.

의료진보 센터(The Center for Medical Progress)는 15일 오전,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를 비밀리에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는 고위 임원들은 어떻게 미국 가족계획협회의 허술한 지침을 이용해 태아의 신체 부분들을 팔아 이윤을 남길 수 있었는지, 허술한 법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낙태한 태아의 세포를 연구목적으로 판매해 이윤을 남기는 행위는 연방법에 의해 범죄로 간주되나, 최근 공개된 동영상에서 가족계획협회의 낙태의사 협의회 미국 디렉터 텡 밴더리는 몇몇 동료들이 낙태된 태아를 매매해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어떤 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낙태의사들도 언급되나, 밴더리는 가족계획협회의 세포조직 거래 알선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미국 내 최대규모의 낙태 사업체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허술하게 제시해 제휴 낙태시술소에서 세포조직 기부 정책을 정할 수 있게 했다고 말한다.

동영상에서 밴더리는 낙태의사들이 이를 시도해 봐야 한다고 권한 뒤 미디어의 주목을 끌지 않으며 불법을 행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 주의깊게 생각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밴더리는 “우리에게 정책이 부재하며 이는 어느정도 의도적이다. 정책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당신의 알선 서비스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준다. 어쨌든 임무에 기반해 이를 행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도 말했다.

의학진보센터(CMP)가 공개한 동영상에서 가족계획협회는 이 단체가 세포 배상 과정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주를 비롯해 국회위원회에서는 이 거대 낙태업체를 수사중이다.

이와 관련, 이미 미국의 반낙태단체들과 기독교인들은 지난달 23일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미국 가족계획연맹 반대 전국 시위의 날’ 행사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오전 전국에 위치한 320개 병원에 모여 시위를 벌였으며, 이는 지금까지 가족계획연맹을 상대로 한 시위 중 가장 큰 규모였다.

반낙태행동연맹의 에릭 J. 웨이틀러 사무국장은 “우리의 가장 주된 메시지는 가족계획연맹이 태아의 장기를 팔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지난달 낙태를 반대하는 이들과 기독교 언론에서 관련 내용이 수 차례 연



미국가족계획협회

급됐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미국인들은 이 사실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낙태반대단체 라이브액션의 릴라 로즈 대표는 15일 크리스천포스트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테드 크루즈(텍사스)에 따르면, 태아 세포를 판매한 댓가로 이윤을 남기는 행위는 10년 구금형에 해당하는 중죄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낙태시술소 2곳이 주 헌법을 위반했으며 콜롬비아주 가족계획협회 클리닉은 콜롬비아주의 21개 규정을 어겼다.

이 클리닉들은 영업정지를 받았으며, 오는 28일까지 정식으로 위법행위를 정정하지 않을 시 폐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미 하원이 최소 1년 동안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18일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이 안건은 찬성 241, 반대 187로 통과됐다.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가족계획연맹은 지난해 약 5억 4,060만 달러(약 6,5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단체 1년 예산의 45%에 달한다.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테네시주 공화당 소속 마샤 블랙번 의원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이를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가족계획연맹을 조사할 이유가 있다면, 이는 이 기간 동안은 지원을 중단해야 할 근거가 된다. 이 돈은 여성들에게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면서 “미국인들은 세금이 낙태에 사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날 하원에서는 낙태 수술 도중 살아난 아기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 전 세계에서 5분에 1명 꼴로 기독교인 순교

박해감시단체 CFI, 11월 8일 '국제 기도의 날' 앞두고 기도 요청

박해감시단체인 '크리스천프리덤인터네셔널'(Christian Freedom International, 이하 CFI)은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16일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CFI는 오는 11월 8일 열리는 '국제 기도의 날' 행사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교회들이 기도해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CFI의 집 제이콥슨 회장은 15일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가족이다. 이들이 박해에 직면한 와중에도 복음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박해자들이 이들의 용기 있는 증언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다.

CFI는 이를 위한 기도회를 준비 중이며, 각 교회에 포스터와 안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주일학교 교재나, 박해에 대해 언급한 성경구절 등도 포함돼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소속 사회학자인 마시모 인트로비네 박사 등을 포함한 기독교박해감시단체들

과 활동가들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5분에 1명 꼴로 순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트로비네 박사는 지난 2011년 “매년 최소 10만 5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동안 IS로 인해 이 수는 더욱 증가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돕는 자선단체인 카리타스 이탈리아나(Caritas Italiana)의 통계도 이와 비슷하다. 이에 따르면, 신앙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종교인들의 수가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명에 이른다. 또한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를 비롯해 북한에도 약 5~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감옥이나 수용소 등에 있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미국 오픈도어선교회의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 “매년 진행되는 국제 기도의 날 행사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모든 일들과 북한의 박해 문제 등에 대해 속고 해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로서, 이곳 미국에서 박해받는 신앙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 O.C. /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기도회 9:00pm  
(2부) 1:30pm 금요일전야예배 8:00pm  
새벽예배 (월-목) 5:00am (더울밤) 7:00am  
화요일기도회 7:00pm 토요일예배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오병익**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가곡예배 :매일 4배주주일 오후 5:30분  
대학생예배 오후 2:30

**남가주 벨엘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18523 Arline Ave., Artesia, CA 90701  
T. (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 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헤어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t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 (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 (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 오전 6:00 분당 **허귀남**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놀워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11:00am 금요찬양예배 7:3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중**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영아예배(GLMC) 주일오후 12:30 **박일룡**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수요일저녁 7:3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로렘장로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T. (714) 956-7640 / (714) 956-5845 / WWW.RORHEM.COM

1부예배 오전 8:45 금요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오전 6:00 (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한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기도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 10:30 AM Sunday School (All ages) 새벽예배: 5:30 AM (화-금)  
11:45 AM Adult Service 6:30 AM (토)  
1:30 PM English Service  
금요일모임: 7:20 PM(성경 66권특별성경공부)

**이승필** 담임목사

**새로운 교회**  
이새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것으로 변화로 받아  
하-침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신앙이 무엇인지 알려드립니다!2:20  
12432 9th. St., Garden Grove, CA 92844  
Mobile: (949) 933-7242  
Saerounchurch@gmail.com

성경적 목회 신학대학교 학장 **정승룡** 박사 회장 **주혁로** 목사  
성경적 목회 교육원 원장 **리세일** 목사  
사무간사 **홍지윤** 전도사

**성경적목회연합회**  
"성경적 목회에 뜻을 두신 목회자께서는 누구든지 문의 바랍니다."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el. (562) 896-9191, (714) 252-9191

1부예배 오전 9:00 P-ände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 (7-12) 오전 11:00  
토요일(새벽)도 오전 6:00 Youth(7-12) 오전 11:00  
College 오후 1:00

**엘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홍성준**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생년부 오후 1:30

**엘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민**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11:30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생년부 오후 2:00

**엘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예배: 오전11:30 **김일림** 담임목사  
금요일예배: 오후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5:30  
EM주일 오전11:30  
교육부: 오전11:30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9-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 인터넷 생방송들이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토요일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1:50 **김민재**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5(Worship Center)  
T.(714)788-3677 / www.yechin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1부예배 오전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11: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 영어중고등부예배 오전11:30  
주일3부예배 오전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5:30, 토 주일 오전6:00

**엄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1부예배 오전 09: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삼강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어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아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 예배: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조원재**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8:00

**하나님의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주여, 분단 70년이 통일의 해가 되게 하소서

# NA 통곡기도대회

## 통일의 그 날까지 통곡하며 부르짖는 남가주 교회들과 성도들의 연합기도대회

- 일시: 10월 4일 (주일) 오후 4시
- 장소: 주님의 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 지역별 버스 운행 안내

#### ※ 오렌지 카운티 지역

- 출발일시: 10월 4일(주일), 오후 2시30분 출발, 예배후 같은 장소로 리턴.
- 출발장소: 가든글로브 아리랑마켓 주차장:
- 출도착 주소: 9580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949-297-3788

#### ※ 밸리지역

- 출발일시: 10월 4일(주일), 오후 2시30분 출발, 예배후 같은 장소로 리턴.
- 출발장소: 은혜와 평강교회 주차장(곽덕근 담임목사님)
- 출도착 주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949-297-3788



### 이만감의

## 그녀들이 생생히 밝혀 줄 탈북 스토리!



신은하  
전, 평양 민속 예술단



이소연  
전, 북한 여군 상사



최수향  
전, 평양예술단 연주자



지성호  
현, NAUH(나우)대표



이민복  
현, 대북 풍선 단장

- 주관 : 그날까지 선교연합(UTD)/해외3천인목사단  
(공동대표 : 박희민 목사, 이원상 목사, 송정명 목사, 김인식 목사, 손인식 목사)
- 주최 : 남가주 모든 한인교회들의 목회자, 장로, 권사, 안수집사, 평신도 일동
- 문의 : 24196 Alicia Parkway, Suite E, Mission Viejo, CA 92691  
T) 949-297-3788 email : utdusa21@gmail.com

한국인 핏줄을 가진 모든 성도들의 공동기도 - "주여, 분단 70년이 통일의 해가 되게 하소서!"



100% 천연성분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 PRO-Z

한국 50만병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불신자 전도가 정체되면서 미국과 한국 등 기독교가 큰 부흥을 이루었던 나라에서 크리스천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가 신자들의 믿음이 갈수록 미지근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두 가지 현상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를 입증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클릭 한 번이면 성경책을 열고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교인들의 말씀 자체를 사모하는 마음은 멀어져 가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시대라 소그룹 성경공부를 통해 말씀에서 길어 올린 깊은 깨달음을 나누도록 도와 신자와 비신자의 삶에 변화를 주는 사역을 펼침으로써 이슬람 국가 등 복음전파가 금지된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성경공부 프로그램 '커피 브레이크'(Coffee Break)에 더 눈길이 간다. 다음은 이 단체의 공동 국제대표인 백은실 집사와 일문일답.



지난 7월 남가주에서 열린 제10회 국제커피퍼런스. 미국과 한국 등에서 약 400명의 한인들이 참석했다.

# 커피 마시듯 부담없는 성경공부로 삶의 변화

■ 기독교일보 초대석 커피 브레이크 국제대표 백은실 집사

-커피 브레이크 성경공부를 소개해 달라.  
 "1970년 CRC(미국개혁장로교회)라는 교단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현재는 55개의 다른 교단에서 도입할 정도로 널리 퍼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어 불신자를 전도하고 성경공부 인도자를 훈련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처음 시작되었는지.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시카고 인근에 'Peach Church'라는 교회를 개척한 앨빈 밴더그렌드란 목사가 계시다. 당시 그 교회는 어린이집을 열고 '스토리 하워'를 진행했는데 자녀들을 데려다 놓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잡담하는 불신자 어머니들을 밴더그렌드 목사가 'Let's have coffee!' 하며 안으

아들이다. 그게 바로 질문의 힘이다. 전체 대화 중 8~20%만 인도자가 하도록 가르친다."  
 -커피 브레이크는 한인 사역이 활발하다는데.  
 "그렇다. 1990년에 출범해 현재는 미주한인사역팀, 한국사역팀, 일본사역팀, 멕시코사역팀, 콜롬비아사역팀, 인도사역팀 등으로 나뉘어 저마다 열심히 활동중이다. 새로운 센터가 계속 생기는 미주의 경우 남가주, 북가주, 워싱턴주, 텍사스, 플로리다, 앨라배마, 뉴저지, 오하이오, 뉴욕, 일리노이, 미시간, 애리조나, 워싱턴 DC, 캐나다 토론토, 밴쿠버 등의 지역에서 사역한다. 남가주는 여성들을 위한 오전모임이 애나하임, 브레아, 세리토스, 어바인 3곳, 플러튼 2곳, 가든그로브, 라구나, 사우스베이, 샌디에고, 샌타클라리타, 코비나,



커피 브레이크 공동 국제대표로 사역하고 있는 백은실 집사.

정적인 일을, 저는 강사 훈련, 교재 업그레이드 등을 한다."  
 -국제대표로서 무척 바쁘게 살 것 같다.  
 "기독교청년 수양회인 코스타(KOSTA)를 15년째 섬기고 있다. 작년과 재작년 남미와 유럽 코스타에서, 지난 5월과 8월에는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개최된 미국 코스타와 토론토에서 열린 캐나다 코스타에서 젊은이들에게 특강을 했다. 최근에는 플로리다와 앨라배마에서 전교인 수양회 특강과 소그룹 인도자 훈련을 하고 돌아왔다. 플로리다에서는 35년간 교회생활을 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여집사님이 요나서 성경공부 시간에 제 강의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 정말 기뻐다. 제가 청년 시절 가졌던 전도 열정을 상기고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관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는 26~27일 남가주사람교회에서 열리는 제33회 HYM 청년연합집회의 특강을 맡았다. 말씀묵상에 대해 26일에 참석자들과 나누게 된다."  
 -소그룹과 관련된 책도 썼다고 들었는데.  
 "보석을 캐는 리더,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발견학습, 샬롬! 소그룹 등 세 권의 책을 썼다. 또 한 권의 책을 현재 준비 중이다. 아마도 '예수님께 배우는 커뮤니케이션'이란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다. 요즘은 사람들이 의사소통과 이미지 메이킹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가족을 소개한다면.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장로이자 CRC 교단의 18인 이사 중 한 사람으로 봉사하는 백규식 장로가 남편이다. 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커피브레이크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등 저를 위해 막강한 '외조'를 해준다. 의대 본과에 재학 중인 큰 딸과 초등학교 교사인 둘째 딸을 두고 있다. 아버지인 한철수 목사는 이민교회를 개척해 오래 목회하시고 은퇴하셨다. 저희 자식들이 얘기할 때면 너무 재미있다고 박수 치시면서 밤새도록 들어주시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서울에서 새로운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홍목사가 남동생이다. 부모님께서 뿌리신 기도 씨앗의 열매를 우리 세대가 거두는 것 같다."

문의: 714-290-2111  
 김장섭 전문위원

## CRC에서 전도 위해 시작돼 55개 타교단으로 퍼져 맞춤형 귀납법적 질문 통해 스스로 진리 깨닫게 유도 한인사역 활발 남가주 25개 등 세계 여러나라서 모임

로 초청한 것이 성경공부의 출발이었다. 추운 겨울날 맛있는 커피와 쿠키를 준비해 놓고 친절을 배운 것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다. 잘 훈련된 그 교회 여집사님이었던 나바 이브하우스가 그들을 위한 맞춤형 교재를 개발하고 성경공부를 인도하는 등 큰 역할을 했다."  
 -이 성경공부의 특징은 무엇인가.  
 "제가 정리한 '발견학습법'(Discover Your Bible)이라는 독특한 방법론을 활용한다. 관찰 질문 중심으로 성경공부를 진행하면서 모든 참석자들이 직접 진리를 발견하도록 유도한다. 또 학구적인 접근방식을 버리고 마음으로 말씀을 만나도록 돕는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맞춤형 귀납법적 성경공부'다. 다른 성경공부와 다른 점은 소그룹의 성격에 맞는 질문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다.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질문과 함께 보면 관찰하게 되고, 질문과 함께 들으면 경청하게 되고, 질문과 함께 읽으면 묵상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질문 받고 고민하는 가운데 스스로 발견한 진리는 다른 사람들이 강요하지 않아도 받

팔로스버디스, 데메쿨라, 월넛, 벨리, 코로나 등에서 열리고 있다. 저녁모임의 경우 세리토스(남성), 애나하임(부부), 어바인(남성), 플러튼(남성, 여성), 밸런시아(남성) 등에서 모인다."  
 -어린이 프로그램도 있는가.  
 "출발 때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었기에 당연히 그렇다. 2~3세 아이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리틀 램'(Little Lamb)과 4~6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소개하는 성경 교과과정인 '스토리 하워'(Story Hour)가 마련되어 있다.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고무찰흙놀이, 노래, 언어 유희, 손 유희, 다양한 게임 등과 드라마, 인형극 등을 활용한다. 훈련된 교사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인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국제커피퍼런스가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남가주에서 열린다. 올해도 지난 7월 인더스트리에 있는 피시픽팜스 리조트에서 제10회 국제커피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한국, 멕시코,

일본, 몽고,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성경공부 리더들과 말씀을 사모하는 크리스천들이 약 400명이나 참석하는 성황을 이뤘다. 북미주 한인 커피브레이크 대표 박종선 사모님을 주강사로 느헤미야를 공부하며 큰 은혜와 회복을 경험했다. 1회 행사 때는 약 100명이 왔는데 갈수록 규모가 커진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커피 브레이크와 인연을 맺게 되었나.  
 "1997년 뉴멕시코에 살 때 남편이 평신도로서 목사님 없이 개척했던 우리 교회에 한인 커피 브레이크 초대대표셨던 이명숙 권사님이 강의를 오시면서 이 프로그램을 만나게 됐다. 계속 연락을 주고받던 이 권사님의 권유로 훈련 받고 남편과 더불어 15세 영아육상 강사로 섬겼다. 2000년 남가주로 이사했고, 2001년부터 한인대표로서 사역했다. 2011년에 미시건 그랜드래피즈에 본부를 두고 24개국을 섬기는 '글로벌 커피 브레이크 미니스트리'의 국제대표를 맡았다. 한인들이 커피 브레이크의 중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공동대표이신 샘 후이젠가는 주로 행

##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가을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5년 가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부문

- 1. 신학 대학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 2. 신학 대학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 3. 일반 대학교**
  -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5년 9월 21일(월) ~ 11월 27일  
 겨울학기 개강일 : 2015년 12월 07일(월) ~ 2월 12일  
 봄 학기 개강일 : 2016년 2월 15일(월) ~ 4월 22일  
 여름학기 개강일 : 2016년 5월 16일(월) ~ 7월 22일

**4. 홈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천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천 홈스쿨링은 크리스천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가을학기 등록 안내 : 2015년 9월 18일 까지 등록 마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 기침, 초박빙 총회장 선거·유영식 목사 당선

## 대학·병원 살리고 복지 100억 시대 열 것...제1부총회장에는 박종철 목사



기침 제105차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신임 총회장에 유영식 목사(기침 전 총무 및 제1부총회장), 제1부총회장에는 박종철 목사(새전주지방회/새소망침례교회 담임)가 각각 당선됐다.

21-24일 강릉 실내종합체육관에서 '교회 부흥 교단 부흥'을 주제로 제105차 정기총회를 열고 있는 기침은, 둘째 날인 22일 저녁 의장단 선거를 치렀다.

먼저 초박빙이었던 총회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기호 1번 유영식 목사가 651표를 얻어 629표에 그친 기호 2번 윤덕남 목사(한기총 총무)를 근소하게 앞섰으나, 당선에 필요한 2/3를 넘지 못해 2차 투표에 돌입했다. 이어 종다수 방식의 2차 투표에서 유영식 목사 625표 윤덕남 목사 595표로 유 목사가 당선됐다.

제1부총회장 선거는 1차 투표에서 기호 2번 박종철 목사가 989표

를 얻어, 325표에 그친 기호 1번 김중근 목사(동남지방회/예인교회 담임)를 크게 제치고 당선 확정됐다.

유영식 목사는 "정기총회 때마다 교단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은 있었으나, 교단의 일부 문제는 더욱 심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시험 문제라 할지라도 공식을 알면 쉽게 풀 수가 있듯, 저는 교단 총무로 역임하면서 교단의 제반 문제들과 해결 방법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교단의 변화와 안정을 가져오겠다. 총회 규약과 침례회 정체성을 철저히 지키겠다. 침례회 회중주의에 따라, 중요한 일들을 총회와 각 지방회가 함께 일하는 총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교단의 위상을 높일 것, 영성을 회복할 것, 총회 산하 행정 정리를 할 것, 여의도 빌딩 부채 상환에 최선을 다할 것, 침례신학대학

교를 정상화할 것, 침례병원 살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 침례교 복지 100억 시대를 만들 것, 국내선교회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것 등을 공약했다.

박종철 목사는 "선진들과 선·후배 동역자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3,000여 교회와 침례신학원, 침례병원, 진흥원, 국내외 선교회 등 유수의 기관을 거느린, 자랑스러웠던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가 심히 아프다. 언제부터나 반목과 갈등으로 찢기고 깨어진 총회는 부흥의 탄력을 잃어가고, 어떤 기관은 약재가 겹쳐 이제는 존폐의 위기에 봉착했다"며 "저는 여러분의 지혜를 힘입어 화해와 상생의 길을 반드시 찾아내어, 안정된 총회, 새롭게 부흥하는 총회, 서로 사랑하는 총회를 꿈꾸며 일하겠다"고 밝혔다.

류재광 기자

# 신학·신앙 세계화와 통일 대비가 과제

## 예장 합동 제100회 총회 총회장 이·취임 감사예배



예장 합동 제100회 총회 임원들. (왼쪽부터 순서대로) 양성수 장로(부회계), 서현수 부서기)· 이승희(서기) 목사, 신신우 장로(부총회장), 박무용(총회장)· 김선규(부총회장)· 김동관(회록서기) 목사, 이춘만 장로(회계).

예장 합동 제100회 총회 총회장 이·취임 감사예배가 22일 오전 서울 총회 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백남선 목사가 이임하고, 박무용 목사가 취임했다.

박 총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이번 제100회 총회를 준비하고 또 은혜가운데 파송하면서, 총회가 갖는 역사성과 사명에 대해 깊이 고심했다"며 "제100회 총회장 이 갖는 직무의 무게감 또한 절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고 총회가 조직돼 약 1세기가 지나면서 교회가 받은 고난, 목회자들의 땀과 헌신,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돌아본다"며 "그러면서 제100회를 맞은 총회가 한국과 세계 교회 속에서 다해야 할 역할과 사명을 생각해 본다. 바로 한국교회를 바로 이끌고 신학과 신앙을

지키며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풀어아가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세계 열방에 우리의 신학과 신앙을 세계화하는 일, 그리고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키는 일 또한 해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며 "이 모든 일을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하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와 지지도 필요하다. 섬김의 리더십으로 복음의 전파와 총회 위상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1부 예배, 2부 이·취임식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예배는 이승희 목사(서기)의 사회, 신신우 장로(부총회장)의 기도, 서현수 목사(부서기)의 성경봉독, 길자연 목사(경총회장)의 설교, 김선규 목사(부총회장)의 축복으로 드렸다.

김진영 기자

#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제외 된 기독교 다시 포함하기로 결정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에 불교, 천주교, 동학 심지어 정감록도 포함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빠져 있는 것을 대치하기 위한 한국 교계의 활동이 탄력을 받고 있다.

국회조찬기도회, 국가조찬기도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한일기독교의원연맹,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 등으로 구성된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한일기독교의원연맹 공동대표), 공동대표 전용태 장로(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총재), 상임사무총장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와 기독교역사교과서대체위원회 전문위원장 박명수 교수(서울신대)와 실무담당 여운영 목사 등은 지난 18일 오전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황우

여 교육부총리를 면담하고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기독교 내용이 빠져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고 교육과정 성취기준 및 집필기준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진 장로는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국장에게 "이명박 정부 때 안병만 교육부장관에게 내가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기독교가 왜곡되어 있고, 축소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해서 결국 집필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같은 정권의 연장선에 있는 현 정부에서 집필기준에서 기독교가 빠져버린 이유가 뭔가"라고 물으면서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집필기준에 기독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용태 장로와 박명수 교수 역시 "근대와 시기에 의료, 한글보급, 교육, 독립운동 등에 기독교의 역할이

컸다"며 반드시 기독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영 목사도 "역사교과서에 기독교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문제는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한국기독교계가 제안한 10대 정책 가운데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우여 부총리와 담당국장은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집필기준에 기독교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집필기준에 기독교를 포함시키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한편, 한국기독교역사교과서대체위원회와 한국교계국회평신도 5단체협의회는 앞으로 역사교과서의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기독교가 빠진 것과 관련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다.

류재광 기자

# 동성애 사회구조 붕괴 가져올 수 있어

## 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정기세미나 박문수 교수 발표

동성애가 미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동성애는 자연적 질서인가: 성적지향에 대한 신학적 반증"을 주제로 박문수 교수(목회신학연구원 원장, 조직신학)가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제81회 정기세미나에서 발표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박문수 교수는 먼저 동성애·동성혼의 역사적 사상적 배경을 설명했다. 1960년대 피임약의 발명과 사회적 관습의 전반적인 약화,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인권주장이 성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혁명을 일으켰고, 1993년 4월 25일 워싱턴 D.C에서 30만 명의 동성애자들이 모여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부르짖으며 집단시위를 하였는데, 이것은 동성애를 도덕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동성애자의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더불어 박 교수는 "기독교계 일부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급진적인 견해가 등장하므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비판하는 교회들은 인권에 대해 무지하고 과격한 이익집단으로 매도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박문수 교수는 "동성애라는 하위 성문화의 확산은 사회구조의 붕괴를 가져올만한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동성애란 사랑이란 이름으로 왜곡된 욕망"이라며 "다만 동성애는 죄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이미 팽배한 동성애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동성애를 접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기독교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동성애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에게 좀 더 따뜻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했다.

이수민 기자

#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순회원
- 기독교원리(2) 포함(세미나), 상담학(2), 선교학(2),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사은 목사 71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열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aeumaster@gmail.com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인목의 정리,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강: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미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효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 추천

### 세계관을 분별하라

안점식 | 조이선교회 | 440쪽

1988년 초판 이후 17년 만의 '수정 재판'이다. 사탄이 문화와 세계관과 종교들을 통해 역사해 온 보편적 양상을 볼 수 있고,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인간의 갈망과 반역성에 대한 보편적 통찰을 해낼 수 있다. 책은 이를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세계관들은 연합 전선을 펴면서 성경적 세계관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 2인3각 행진곡

정호욱 | 두란노 | 264쪽

故 하용조 목사와 함께 30년간 일대일 사역을 이끌어 왔던 저자의 모든 것을 담았다. 구레네 시몬처럼 자신도 잘 알지 못하는 사역에 부름받아, 30년을 하루같이 성실하게 영적 자손을 낳고 또 낳으며 하나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를 깨달아 왔다. 국내는 물론 세계로 나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성숙해 가는 동역자들의 이야기가 합주곡처럼 펼쳐진다.



### 인생은 요셉처럼

원용일 | 브니엘 | 248쪽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 그가 '구덩이'에 빠지면서부터 총리가 되기까지 약 13여 년간 거친 '중간 과정'을 잊은 이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요셉은 무작정 자신의 꿈만 믿고 머물러 있지 않았고, '꿈이 현실로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며 담금질의 과정을 겪었음을 강조한다. 요셉이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었던 과정들을 재미있고 상세하게 알려 준다.



### 메마름의 축복

주명수 | CLC | 328쪽

변호사이자 목회자인 저자가 겪고 공부했던 일들을 토대로 쓴 <영혼의 어두운 밤>의 후속편. 성도들이 '영적 메마름과 고통'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특히 성경 속을 통한 메마름과 성숙을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은 만사행통을 주신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영적 메마름과 고통을 통해 자녀들을 성숙시키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 REVIEW

# 이단 특성: 간단하고 분명한 해답, 복음 진리의 '가시화'

## 최더함 목사 「기독교 사상전사」 개정판 출간

웨슬리신학연구소가 최근 신학계에서 떠오르고 있는 '관계적 삼위일체론'에 대해 소개하는 책 <관계 속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펴냈다.

연구소는 삶의 원리로서 '관계'를 중시하고, 이를 기독교인의 구체적 삶과 긴밀히 연결하여 삼위일체를 우리의 친숙한 교리로 삼으며, 인간과 사회와 세계의 구원을 모색하고 하나님나라의 오심에 기여하기 위해, 삼위일체를 특성화하고 전문화한 '관계적 삼위일체론' 프로젝트를 해당 분야에 정통한 신학자들과 기획했다.

신학자들은 카파도키아 교부들(락헤원), 아우구스티누스(김옥주),

생 빅토르의 리샤르(백충현), 토마스 아퀴나스(정원래), 칼뱅(최운배), 조나단 에드워즈(이승구), 칼 바르트(황덕형), 위르겐 몰트만(곽혜원), 볼프하르트 판넨베르크(조현철), 레오나르도 보프(김영선), 존 지지울라스(김은수), 캐서린 모리 라쿠나(이동영) 등, '관계'와 연관된 저명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삼위일체론을 고찰하고 있다.

책에 소개되는 이들이 이해한 하나님은 기존 삼위일체론에서 기술되는 하나님보다 좀 더 인격적이고 공동체적이며 열려 있는 분으로, 성부·성자·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은 상호 간에 긴밀한 연합(일치)을 이루실 뿐 아니라 피조물과도 끊임없이



목회자는 설교자다  
존 맥아더 외  
생명의말씀사 | 304쪽

이상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다. 김영선 박사는 서문에서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하나님 만남 경험을 교회가 일관성 있게 표현한 '삼위일

체론'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신학의 역사에서 변방으로 밀려나게 됐다"며 "이는 그동안 삼위일체론이 기독교인의 구원 경험에 대한 신학적 진술이 아니라,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취급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삼위일체론은 1970년대 중반 이후 현재 방한 중인 위르겐 몰트만(Jurgen Moltmann)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변적·추상적·형이상학적·비실제적 교리가 아니라 매우 실재적이고 실천적 가치를 지닌 교리로 재등장하게 됐다.

결론 부분에서 이들은 "오늘날 신학계에서 삼위일체론이 부흥하는 상황에 특별히 '관계적 삼위일체론'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이 시대의 신학이 성서와 기독교 전통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동시에 교회와 사회의 구체적인 현실을 실제로 변혁할 수 있는 신학적 원리를 추구할 때에야 비로소 생명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며 "즉 우리 시대의 신학이 철저히 성서에 기반을 둔 기독교 전통을 반영하는 동시에 시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신학이 될 때, 교회와 사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재형성할 수 있는 생명력 강한 신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대용 기자

**기/독/일/보**  
5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T(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imaster@gmail.com

**OC 기독교교회협의회**

- 회장: 김기동 목사(충만교회)
- 이사장: 엄영민 목사
- 후원이사장: 이범식 장로

김기동 목사

**목사장로 부부 찬양단**

- 단장: 정연두 목사
- 총무: 강평근 목사
- 연습: 월요일 저녁 7~9시 나성영락교회 소망관

문의: (818)233-6900 정연두 목사

기독일보 500호 축하합니다

전중재 교수  
(대구 카톨릭대학교 명예교수)

**미주기독한의사협회**

- 회장: 이기미 (Tel:213-235-7169)
- 총무: 김창근 (Tel:213-453-1573)

**시카고 벨엘장로교회**

기쁜 마음으로 (Willing Heart)  
서로를 섬기며 (Serving)  
참된 변화를 체험하여 (Transforming)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교회 (Making Disciples)

주일 1부 예배: 11시  
주일 2부 예배: 1시 30분  
주일 학교와 EM: 주일 11시  
새벽 예배: 월-토, 오전 6시  
399 N. Quentin Rd. Palatine, IL 60067

최병수 목사

**십자가영성원**

공동대표  
이명수 목사, 김재흥 목사

십자가의 길  
"십자가 지고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체험케 하소서"

**shalom 장애인선교회**

"지역사회 속에 소외된 장애인들을 찾아내어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2869 W. Pico Blvd,  
Los Angeles, CA90006  
Tel: (323)731-7724  
www.shalommin.com

박모세 목사




# 기독일보 5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세미한교회는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사랑과 믿음의 예배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감동과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 세미한교회

1) 세계인과 미국인과 한국인과 더불어 예배드리는 교회  
2)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교회  
3) 2세를 100% 세계인, 100% 미국인, 100% 한국인으로 키우는 교회



최병락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금요일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주소 및 전화**

1615 W Belt Line Rd, Carrollton TX 75006  
Tel) 972-446-0178  
[semihan.org](http://semihan.org)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꿈이 있는 공동체

## 올리브나무교회

Olive Tree Church (OTC)



**예배시간 안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주소 및 전화**

300 S. Western Ave., LA, CA 90020 (한인타운 3가+웨스턴)  
Tel) 213-300-9762

## 생명의 말씀사

기독일보 "5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전인철 대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preach the word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2 Tim 4:2)

**Tel: (714)530-2211 Toll.(877)577-8080**  
9838 Garden Grove Blvd, CA 92844-1643  
Atlanta Tel: (678)957-1021 Chicago Tel: (877)298-3160

"예수를 본받는 교회, 믿는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이 소문난 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 충현선교교회

사/명/선/언  
복음을 신실하게 믿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사랑으로 불신자를 불러 양육하는 예배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하여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한다.



민종기 담임목사

**예배시간 안내**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오전 11: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주소 및 전화**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choonghyun.org](http://choonghyun.org)

기/독/일/보

5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 주님세운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박성규 담임목사

## 남가주빛내리교회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현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집회 오후 8:00  
매일 새벽 집회 월 - 토 오전 5:30

1201 S. Beach Blvd., La Habra, CA 90631



박용덕 담임목사

주어!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품는 교회되게 하소서! [행9:31]

## 동부사랑의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후 12:00  
Holy Wave오전 10:15  
대학청년부 오후2:00  
새벽예배 월~금 오전5:20  
토요 연합예배 오전 6:30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909) 590-3722



박성규 담임목사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 LA사랑의교회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 예배 오후 2:22  
EM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오전 6:20(토)

주일 - 버질중학교 / 토요일 새벽 - 1가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 Jesus kidz

무료 세미나를 통해 작은교회 주일학교 교육 지원

대표 임은희 전도사  
estherlimjds@hotmail.com  
Tel: (213)422-0022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 은혜와평강교회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 토기장이교회

주일 섬김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금요기도회 : 금요일 오후 8:00pm  
새벽기도회 : 월-금요일 오전 5:30am  
토요일 오전 6:00am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om  
E-mail : info@Potterscc.com



임경남 담임목사

## 남가주한인청소년비전센터

Korean Youth Vision Center of Southern California

대표 전동은 목사  
문의: (714)904-6298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달리슈팅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시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제책, 번역물인쇄 전문  
www.juni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서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 1,000set(\$180) 고급양공 실교서 1set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엽서

각종행사용 및 전도용품, 선물용으로 구비되어 있으나 행사용으로 양광학사의 더욱 다양한 종류와 양식에 맞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Special Price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노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인 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 골든씰

Golden Seal

천연연못생제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격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 부터...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탄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 win HYUNDAI CARSON

### 원현대 칼슨 HYUNDAI

##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www.winhyundaicarson.com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 “Loving and Serving Others Is Our Duty as Christians”

BY RACHAEL LEE

Korean American volunteers who give their time and energy to serve the greater community gathered in one place on Saturday at the first ever Korean American non-profit organization fair in Los Angeles.

The fair, called “Love of Sharing,” was hosted by Open Bank’s charity foundation, Open Stewardship Foundation, and featured some 20 non-profit organizations that focus on various facets of society: low-income communitie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he immigrant community, families and children, and impoverished communities in other countries, among others. These organizations were able to set up booths and share about their missions to those who stopped by. Some 450 people attended the fair.

Young Kim, Assemblywoman of the 65th Assembly District, and Hong Joo Choi, the senior pastor of Church Everyday, were featured as guest speakers during the morning portion of the event, during which they shared their own experiences, advice, and reasons people should be involved with community service and non-profit work.

Kim advised those in non-profit to invest time and effort to be properly trained, to prioritize being financially transparent, and to train the next leaders to carry on the work instead of relying only on one or few individuals for the long run.

“Even in the midst of difficult times, focus on the fact that through your service, someone out there is able to live a better quality of life, and pray for those you are serving,” Kim said.

“No matter what other people say, don’t lose sight of how and why you first started this work, and keep moving forward onto what you believe is your calling,” she continued. “You are the true heroes of our community.”

Following Kim, Reverend Choi focused on the different facets of the community that are in need.

“More than 14 percent of the U.S. population is living in poverty according to a 2013 census,” he said, “and some four million people are living on \$2 or less per day. 21 percent of our children and youth are homeless.”

For Christians, he said, serving and loving others in the community is not simply an option, but a duty and a command from God.

“And it is through our Lord that we learn how to love our neighbors,” he said.

God’s Image, a worship dance ministry consisting primarily of Korean American youth and young adults, also performed several songs for the audience during the event. Video clips that briefly introduced the work of the various organizations represented were also shown intermittently throughout the first portion of the fair.

Attendees had about three hours to visit the various booths of different non-profits thereafter, and during their visits to the booths, they were able to receive stamps on stamp cards, which qualified them for a chance to win a raffle prize.

American Wheat (Milal) Mission of Southern California,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Good Neighbors, Compassion International,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Circle of Friends, Oaks of Righteousness, Somang Society, Koreatown Youth and Community Center, Hanmi Family Counseling Center,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and Korean Resource Center were among the organizations that were represented at the fair.

Open Bank CEO Min Kim expressed previously that if this year’s fair is “successful,” she hopes to see another fair happen next year on an even larger scale as a collaborative community effort.



Attendees at the recent non-profit fair had the opportunity to visit various booths and speak to representatives of 20 Korean American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greater Los Angeles area.

## For Reunification, “We Need to Ask God to Move”

Korean Church Coalition to Host ‘Wailing Prayer Meeting’ in L.A.

BY RACHAEL LEE

“Why do we need to pray? Because the people in North Korea are still starving to death and suffering pain. We cannot lose our compassionate heart toward them when they have been in this suffering for 70 years.”

This is the passionate response of Reverend Peter I. Sohn, the president of Korean Church Coalition for North Korea Freedom, a Korean non-profit organization that has been actively advocating for the human rights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hosting various prayer and advocacy meetings and conferences since its founding in 2004. One of the meetings the coalition hosts on a regular basis is the “Wailing Prayer Meetings,” which is hosted in partnership with Until the Day (UTD) Mission for North Korea Freedom, and has been taking place for over 10 years in various locations throughout the U.S.

This year’s Wailing Prayer Meeting in Los Angeles will take place on October 4 at 4 PM at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and it will be the last prayer meeting of this year, following previous ones that took place in Dallas, Detroit, Atlanta, Washington, D.C., and Denver.

North Korean refugees will share their testimonies at the event.

“We’ve seen many positive changes over the years as we held these Wailing Prayer Meetings,” said Reverend Paul I. Kim, the senior pastor of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In 2004, for example, we had a Wailing Prayer Meeting that was attended mostly only by pastors. And it’s a prayer meeting that I will never forget. We prayed with so many tears for the North Korean people. And it was that year that the U.S. passed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The 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 is another U.S. law that was recently passed that the organizers view as hopeful signs of progress.

“We’re expectant of the fruits that our prayers this year will bear for the near future,” said Sohn.

This year’s series of Wailing Prayer Meetings has especially been emphasized by organizers due to the fact that August 15, 2015 marks the beginning of 70th year since the division in Korea began. Korean Christians all over the world have been emphasizing this year in particular for Korean reunification, saying that the Israelites in the Bible were able to return

to Jerusalem after 70 years of exile in Babylon.

“We know that our God is one who can make reunification happen even now,” Sohn said. “We want to pray that this year would be the year that reunification happens, and we will keep praying until it does.”

Sohn added that while the U.S. has given more and more attention to the cause of the North Korean people through the passing of the aforementioned laws, South Korea has yet to pass any such laws, “nor do they currently show any willingness to do so.” He said this is one of the practical aspects that he hopes to see coming to pass this year.

Ultimately, however, though these kinds of policies would help the North Korean people, Sohn said that “reunification is impossible by human’s efforts or thoughts,” and that reunification “will only happen by prayer.”

“It’s overwhelming for us to consider all of the different political, economic factors that must come into play,” said Reverend Hee Min Park, the former lead pastor of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That’s why we need to pray and simply ask God to move.”

## Reaching Students in Mongolia with the Gospel

BY RACHAEL LEE

College students from all over the world have been exposed to the gospel at a university in perhaps an unexpected location: Mongolia.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 is the only university in the country that teaches all of its classes in English. But even more importantly, the university was founded in 2002 with a missional purpose to reach students in Mongolia with the gospel.

“When I first came to Mongolia over 20 years ago, many missionaries focused on church planting,” shared MIU President Oh Moon Kwon at a vision night hosted at Oriental Mission Church in Los Angeles on Sunday evening. The vision night served as a way for MIU staff and recent graduates to share testimonies of how they witnessed God at work through their experiences in the university.

“They [missionaries] asked me to do something that church planters need, but can’t do. So I decided to invest in building schools, and that opened up ways to partner with churches,” Kwon explained.

The school started with a little less than seventy students and five departments, and grew to become a ACBSP accreditation candidate (Accreditation Council for Business Schools & Programs) with undergraduate and graduate courses, 60 faculty members, and almost 700 students.

Many of these students come from various foreign countries, including Afghanistan, Uzbekistan, Nigeria, Germany, South Korea, Japan, Pakistan, and New Zealand, among others, due to the fact that all of the classes are offered in English.

“This is a place where people from all parts of the world are coming to you -- it’s a wonderful opportunity to share the gospel,” said Reverend Jim-Bob Park, the



About 80 people attended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s vision night at Oriental Mission Church.

senior pastor of Oriental Mission Church. Park has been the chairman of the board of trustees for MIU for several years.

“Some of the exchange students from South Korea have received Christ during their time at MIU,” said Joanne Lee, the director of the MIU language institution, who has been a part of MIU’s staff for over four years now.

Lee said her position as an English teacher and as faculty allowed her opportunities to talk to students about Jesus. She also had the chance to lead a team of MIU students on a mission trip to the Mongolian countryside where she said they “witnessed how God keeps his Word, and the fruits of church planting there.” Students lead their own campus worship services, and faculty and students join together in “Praise Him Daily (PHD) worship services” during lunch times.

“The faculty at MIU were really like extensions of Jesus, and they showed me how to live as a Christian,” shared Martha, one of the recent graduates of MIU.

Graduates go on to work as professional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education, technology, business, and government. Some pursue graduate level studies in Mongolia, and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United

States, and England. Many go abroad to other countries and serve in local churches in their respective places.

Though the staff and graduates shared much of the blessings that they’ve experienced through the university thus far, Kwon said there’s still much work left to be done to move forward.

Some of the aspects that he asked prayers for include starting more partnerships with mission agencies and local Mongolian churches; hiring more people to be a part of the faculty and staff; training professors for the English curriculum as Mongolia’s national language recently switched from Russian to English; and most importantly, Kwon said, for God’s wisdom in all of these aspects.

Kwon especially encouraged Korean Americans who are interested to consider taking on a short- or long-term position at the university.

“The network of Korean Americans, and their familiarity with diverse communities can really serve to help them to become great leaders for the university,” Kwon said. “Let’s plant the seeds of God’s dream together,” said Pastor Jim-Bob Park.

“We don’t want to do something on our own, but be a part of what He is already doing.”

## What’s Happening in SoCal?

Upcoming events  
in the greater  
Los Angeles area

**September 26:** Hundreds of prayer vigils will be taking place all over the world on behalf of persecuted Christians and Pastor Saeed Abedini, the Iranian American pastor who is currently imprisoned in Iran for his faith. Several prayer vigils are taking place in Southern California, including in Fullerton, Buena Park, Diamond Bar, Irvine, Norwalk, Rancho Cucamonga, Riverside, San Diego, and Van Nuys. Exact locations and the times can be found online at [beheardproject.com/prayer-vigil/saeed](http://beheardproject.com/prayer-vigil/saeed).

**September 30:**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provides counseling, intervention for domestic violence, and foster family services, among an array of other services for Korean Americans, will be hosting its 32nd annual fundraising gala. Numerous public figures will be featured as keynote speakers, including actress Ae-ra Shin, Assemblywoman Young Kim, Los Angeles City Council member David Ryu, and comedian PK, among others. NBC anchor and reporter Jinah Kim will be the MC for the night. Tickets are \$150 each, and RSVP is required. RSVP by emailing [kyeom@kfamla.org](mailto:kyeom@kfamla.org). The gala begins at 6:30 PM at The LA Hotel Downtown (333 S. Figueroa St, LA, CA 90071).

**October 1:** Los Angeles Church Planting Movement (LACPM) will be hosting a gathering with the theme, “Not Ashamed of the Gospel,” featuring Reverend Michael Lee, the senior pastor of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as the main speaker. The gathering will be an opportunity for pastors and leaders to network and share how God has been moving in their respective places. From 11 AM to 1 PM at Eagle Rock Baptist Church (1499 Colorado Blvd, LA, CA 90041). The event is free, but RSVP is required. RSVP by emailing the organizers at [rdoucette@stadia.cc](mailto:rdoucette@stadia.cc).

**October 4:** Korean Church Coalition for North Korea Freedom will be hosting the last ‘Wailing Prayer Meeting’ for this year. Please refer to the article, “For Reunification...” for more details.

**October 7:** LACPM and Stadia, another church planting movement, will be hosting a networking lunch and workshop called “Together for the City” on October 7 as part of Stadia’s Exponential Conference. The workshop will discuss what has been happening in Los Angeles thus far in terms of church planting, what is and isn’t working, pitfalls to avoid, and ways to join the movement. Lunch starts at 11:45 AM, and the workshop will run from 1 to 2 PM, both at the Life Development Building Room 204 at Mariner’s Church (5001 Newport Coast Dr., Irvine California 92603). Register at [www.eventbrite.com/e/stadia-gatherings-exponential-west-2015-tickets-17007503902](http://www.eventbrite.com/e/stadia-gatherings-exponential-west-2015-tickets-17007503902).

**October 9:** Korean Church Coalition for North Korea Freedom will be hosting a seminar called, “Raising Up Christian Leaders for the Korean Reunification Era.” Dr. Suzanne Scholte, the chairman of the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and president of the Defense Forum Foundation, will be featured as one of the speakers, alongside Reverend Hee Min Park, the former senior pastor of Young Nak Presbyterian Church, and others. The seminar will discuss how young people can be built up and used for God’s plan for Korea. From 8 PM to 10 PM at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ilby Way, West Hills, CA, 91307).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자  
디아스포라여 복음의 동진을 일으키자

2015

# KINGDOM

# DREAM

# CONCERT

## 킹덤드림 콘서트

**SPEAKER** : 천 관 응 목사 (한국 뉴사운드 교회)

**WORSHIP** : NEW GENERATION WORSHIP TEAM

킹드  
LAS VEGAS

일시 : 10월 10일(SAT) 3PM  
장소 : Clark County Library Main Theater  
주소 : 1401 E. Flamingo Rd, Las Vegas, NV 89119

킹드  
LOS ANGELES




일시 : 10월 17일(SAT) 2PM  
장소 : Belasco Theater  
주소 : 1050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5

킹드  
SAN JOSE

일시 : 10월 24일(SAT) 6PM  
장소 : Jubilee Christian Center  
주소 : 175 Nortech Pkwy, San Jose, CA 95134

모든 집회는 무료로 입장합니다. / 좌석이 한정되어 선착순 입장입니다.  
단체 예약을 받습니다. / 집회를 섬길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문의 : 310-905-2228(LA), 310-365-2748(LAS VEGAS), 408-761-7375(SAN JOSE)

   : kingdomdreamintl / [www.kingdomdreamintl.com](http://www.kingdomdreamintl.com)

킹덤드림콘서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으로 진행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후원 : 기독교일보